朝鮮日報
夕刊朝刊合六面
發行所 朝鮮日報社 印刷人 金東成 編輯兼發行人 金炯元

社說

獨逸과 墺地利와의 合同問題

—또 歐洲의 한 걱정거리—

一

獨逸議會議長『뢰베』氏는 獨逸代表一行을 引率하고 維也納에 到着하야 獨墺同盟會員에게 多大한 歡待를 受하얏는데 此一行의 訪墺는 獨墺合同에 對하야 熱烈한 氣勢를 添하엿다고 報道하엿더니 그翌日의 同電은 三十日『나우엔』電은 墺國維也納에서 獨墺合同促進大會가 開催되엿는데 大會에 出席한 獨逸側은 議會議長『뢰베』氏가 그 代表者가 되엿섯는데 同氏의 合同演說은 熱烈하야 拍手를 受하엿다고 報道하엿다 獨逸國會議長『뢰베』氏는 獨逸社會民主黨의 首腦, 多年間 議長으로 잇서 또한 歐洲政界에 잇서도 嶄嶄한 光彩를 나타내고 잇는 사람이다 그 公平한 議長的 態度에 對하야는 아모리 反對黨이라도 一言半辭의 非難이 업는 터이다

二

只今 獨逸國民은 이 名議長 引率下에 그들의 選良을 그 兄弟國되는 墺地利에 보냇다 그리하야 獨逸國과 墺地利國과의 合同을 力說케 하엿다 前記兩電을 綜合하야 생각하야 보면 今番『뢰베』氏一行의 墺地利行이 決코 吟風詠月하는 閑人事가 아니고 그間에 크게 政治的 意味가 介在한 것을 알 수 잇다 獨逸國民과 墺地利國民은 이와가티하야 더욱더욱 接近되여 온다 外交關係로 因하야 只今 急速히 獨墺의 合同이 實現되리라고 생각할 수는 업다 그러나 兩國民의 利害와 感情이 一致되는 以上 外交의 壓迫은 決코 그 合同을 阻碍할 永久的 性質을 가지지 못하는 것인즉 그 時間의 遲速은 何如턴지 畢竟은 合同이 實現되고 말 줄 안다

三

墺地利는 本來 獨逸內의 한 나라이엿섯다 그때에는 國家가 아즉 封建制下에 잇섯슴으로 羣雄이 各地에 割居하야 國家的 統一을 堅固히 할 수가 업섯섯다 獨逸民族의 나라中에는 墺地利와 普魯西가 互相對立하야 서로 내리지 아니하는 地位에 잇섯다 그리하야 恒常 獨逸民族統一運動上에 莫大한 障害가 되엿섯다 比思麥은 獨逸의 統一은 墺地利를 獨逸의 圈內에서 逐出하여야만 되겟다는 생각으로 一千八百六十六年에 墺地利와 싸와서 墺地利를 決定的으로 獨聯邦에서 내쫏찻다 그리하야 比思麥은 普魯西의 覇權下에 獨逸帝國統一의 大業을 完成하엿다 卽 墺地利도 本來 獨逸聯邦中의 하나이엿는데 普魯西의 指揮下에 서기를 슬혀하는 故로 聯邦에서 脫退하야 自立하여 잇섯던 것이엇다 그러나 民族이 同一하고 言語가 同一하고 獨逸民族의 神聖羅馬帝國이라는 歷史를 가티하엿섯는 故로 兩國의 關係는 大戰時에 우리가 目擊한 것과 가티 密接不可離하게 되엿섯다

四

그러나 戰爭前에 잇서서는 獨墺合同問題가 이러나지 아니하엿섯다 獨逸은 世界에 서 엇지할 수 업는 一大强國이엿고 墺地利도 또한 列强에 伍하야 一大勢力으로 누구나 認定하지 아니할 수 업는 나라이엿섯다 또 獨逸은 그 實力에 잇서서 훨신 墺地利를 凌駕하나 墺地利는 그 皇室의 門閥로 歐洲에 第一인 故로 墺地利國民은 獨逸皇室을 도로혀 輕侮하는 생각이 업지 아니하엿섯다 그런 關係로 하야 獨墺의 合同問題는 이러날 수가 업섯다 萬一 또 그들이 大戰에 勝利를 어덧드면 또한 合同問題가 이러나지 아니하엿슬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戰爭에 다 敗北者의 運命을 當하고 兩皇室은 顚覆되고 말엇다 그뿐만 아니라 墺地利는 匈亞利를 일코 『뵈멘』이 떠러저 나가서 『체코』슬로바키아를 形成하고 『보스니아』『헬체고비나』兩州가 떠러저 나가고 그 外에도 領土가 적지 아니 縮少되엿다 그리하야 저 우에 住民 六百六十五萬四千六百十二人(一千九百二十三年度計算) 國土 八萬三千九百八十七平方基米되는 一小國이 되고 말엇다

五

獨逸亦是 領土와 住民을 만히 일헛다 이와가티 되고 보즉 두 國民이 同病相憐할 處地에 잇게 되엿다 只今 와서는 두 國民을 分離식힐 內面的 障碍는 다 업서젓다 先則 皇室이 다 업서젓스니 두 國民이 門班다툼할 必要가 업서젓고 次則 나라가 弱하게 되엿스니 努力다툼할 必要가 업서젓다 墺地利는 獨逸에 對하여서는 努力으로는 도모지 問題가 되지 아니한다 努力이 서로 比等한 곳에 다툼이라는 것이 생기는 것인데 墺地利의 努力이 그와가티 弱하고 보즉 獨逸에 獨抗할 생각은 念頭에도 오르지 안코 獨逸內部에 들어가서 한 支分國의 地位만 차지하엿스면 滿足하겟다는 생각이 墺地利國民의 頭腦를 支配하게 되엿다 또 獨逸側으로 보아서도 墺地利의 獨逸聯邦加入을 只今 와서는 拒絶할 何等의 理由도 업게 되엿다 兩國民의 意思가 이와가티 合致된 以上에는 合同이 早晩間 實現되리라고 생각할 것은 當然한 일이엿섯다

六

그러함으로 一千九百十九年八月十一日의 獨逸共和國憲法에 잇서서는 그 第六十一條第二項에 이와가티 規定하엿다 「墺地利는 獨逸國 合同上에는 그 住民數에 相當한 代表者로써 參事院에 參加할 權利를 取得한다 合同하기까지는 墺地利代表者들은 討議權만 享有한다」 이 規定을 보면 當時에 獨墺合同의 機運이 얼마나 促進되여 잇섯던 것을 알 수 잇다 그러나 이 六十一條第二項의 規定은 『벨사이유』平和條約第八十條에 違反됨으로 獨逸政府는 一千九百十九年九月二十二日에 그 無效됨을 宣言하엿다 平和條約第八十條의 規定은 이와갓다 「獨逸은 墺地利의 獨立을 承認하고 墺地利의 獨立은 平和條約에 依하야 確定된 國境을 不可變할 것으로 하야 尊重하기를 約束함 但 國際聯盟理事會의 同意를 得한 時는 此限에 不在함」 이 平和條約第八十條에 依하야 表示된 聯合國側의 意思는 獨墺의 合同에 依하야 獨逸의 勢力이 增長될 것을 두려워함이다 이것은 外交上의 障碍라 하는 것은 이것을 가르쳐 말함이다 그러나 兩民이 그와가티 熱烈히 合同을 要求한다면 이것은 獨逸의 復興을 위하여 하는 歐洲列國의 한 큰 거정거리로 不失할 것이다

自主權은 反對인가

日回答과 中國側見解

(北京一日發) 中國의 關稅會議招請에 對한 日本側의 應諾回答公文은 一日正午 北京에서 發表되얏다 此에 依하면 日本政府의 意嚮이 中國의 自主權要求에 對하야 贊否를 表치 안코 오즉 華盛頓條約의 規定에 基한 同會議에서 中國의 提議가 合理的인 者에 對하야는 考量을 不辭하겟다는 頗히 漠然한 者인데 該公文과 種種의 情報를 綜合하야 日本이 自主權 反對인 것은 漸確實하게 되얏다고 解釋되더라

外交團益多忙

芳澤公使談

(北京一日發) 芳澤公使는 말하되 中國政府의 關稅會議招待에 對하여서는 文書로는 아니나 久米도 이미 參加承諾을 表明하얏스며 日本의 同會議에 對한 態度는 一日公表한 應諾回答의 公文書以外에는 아모것도 말할 수 업스나 各國의 態度도 日本과 大略同樣이라 思惟한다 上海事件交涉은 遂히 近日中에 열릴 터인데 中國側은 關稅會議外지에 解決코자 하는 希望이라는데 其時外지에 解決이 될는지 아니될는지 司法調査委員會問題도 聯되야 잇슴으로 아즉 疑問이며 그뿐 아니라 治外法權撤廢委員會가 열리면 外交團은 益益多忙하리라云

露人外交總長任命?

注目할 今後의 廣東政局

(北京一日發) 廣東에서 共産派가 反共産派의 劉東의 裏面을 探하야 此를 一掃하고 廣東이 一時的으로라도 完全히 共産派의 天下가 된 事實은 北京外交團의 多大한 注意를 惹起하며 特히 外交總長에 露國의 『보로진』氏가 就任하엿다는 消報는 某國公使館에도 達하얏슴으로 一層注意를 惹起하는 中이다

共産派驅逐을 宣言

國民黨反共産分子가

(北京一日發) 國民黨中의 非共産派인 同志俱樂部는 國民黨中少數의 分子가 共産黨과 結託하야 廣東의 政權을 露國軍人의 手에 넘기어 賣國的 行動에 出하야 廣東을 占領하고 廣東人民을 犧牲하는 事를 指摘하야 同志와 共히 此一派의 驅逐을 宣言하얏다

兩會經費決定

四千元支出로

(北京一日發) 本日閣議에서 關稅委員會條令及留日學生監督復活의 件並今週催되는 日中佛敎大會에 四千元支出의 件을 通過하얏다

廣東政府去益赤化

反共産黨派續續逮捕

(廣東一日發) 廣東共産黨頭目廖仲愷氏暗殺事件以後 右는 미리 計劃한 陰謀인 事가 判明되어 胡漢民氏를 始하야 反共産黨派의 政客은 續續逮捕되고 家宅搜索을 受하는 中인바 共産派의 探偵政事는 去益嚴重하고 또 蔣介石氏는 衛戍司令에 任命된 結果 更히 廣東政府는 赤化의 度가 濃厚하여 가는 것으로 觀測되더라

英船員罷業漸次擴大

(나우엔二日發) 英國船員罷業은 丁抹에 波及되엿다 卽 丁抹諸港에 碇泊한 三百七隻의 船舶水夫는 本部 三十一日夜半에 罷業을 開始하엿다

靑年老年 (二)

民世學人

三十前장가 四十前재물이라는 俗諺이 잇다 三十前에 娶妻치 못하고 四十前에 致富치 못하면 드되어 一生을 虛送할 것을 이름이다 前段에 列擧한 諸人者와 가티 幼年에 이미 立志하엿거나 早年에 大業을 成就한 者는 史上에 그 匹儔가 드물은 非常한 人物들이어니와 天下今古 無量數 無名英雄 및 晩成한 偉人들도 靑年의 時期부터 一念으로 邁進한 者 아니고는 그 容易한 成功을 볼 수 업는 것이다 非常한 時期에 非常한 事變은 모다 靑年者들의 躍進性에 依하야 成就하기를 約束한 것으로 되는 바이지마는 年少氣銳하야

往往히 大事를

그릇하는 것은 上述한 諸人中에 도 그 例가 적지 안타 사람은 老成할수록 그 識見이 固密하고 心法이 老鍊하야 容易히 失敗치 안는 바 잇스니 이는 自負心이 厚如하는 靑年者의 留意할 바이다 新羅의 金庾信이 十八에 馬首를 斷하고 中岳石窟에 들어가 十年을 修鍊하야 비로소 上仕하니 二十八歲로써 一面의 任이 當함이오 奮臨한 시數十年에 바야흐로 太宗王을 도아 統一의 業을 이루니 그가 國家의 大任을 當하든 때는 또한 이미 老成한 時期이엇섯다 忠武公은 蹲臣의 漢陽朝五百年間 第一條大偉人인 것은 長說할 바가 잇지 안커니와 그가 各地에 歷任하야 全羅의 右水使로 壬辰役에 出動하든 것은 이미 四十七歲로서 意氣堅實 智勇周到하든 때이엇다 그의 戰陣八年間의 生涯는 자못 將相吏僕의 諸職을 備盡하야 一毫의

遺漏와 差錯이

업섯스니 이는 또한 氣銳한 靑年者의 容易히 追隨치 못할 者이다 句麗의 乙支文德이 宇文述, 來護兒等 隋家의 驕將을 對手로 서 좌웃 應變隨機, 擒縱自在한 手腕을 發揮하엿스니 史上에 그 年齡을 明記치 아니하엿스나 確實히 老成期의 일일 것이다 隋書에는 句麗大臣 乙支文德 沈鷙有大度라고 特書하엿스니 그 地位 및 態度가 다만 血强氣銳한 少年이 아닌 것은 明白하다 往年의 中國의 [illegible]이 [illegible]에서 第三次命을 首倡하야 엿고 『세묘노프』가 [illegible]에서 그 革命軍을 統率하엿스니 一은 碌碌한 小丈夫요 一은 凡庸한 傀儡이라 特書할 바 업거니와 當時의 나이 모다 二十七歲의 靑年들이든 것은 昨述한 바에 비취어 자못 興味잇는 事實이다 蔡鍔은 病死하엿스나 오히려 一代義氣男兒의 稱을 일치 안코 『세묘노프』는 [illegible] 長崎에서 歸化客을 지엇스니 그는 徹底한 日本宗의 凡物이다

甲申改革의 亂

에 當事한 人物들이 二十六歲의 最上으로 모다 二十三四歲의 靑年中의 靑年이엇스니 이는 또한 老朽者들의 到底企及할 수 업는 靑年獨特의 壯擧이지마는 當時의 謀事가 매우 促急疎漏하야 敗亡이 旋至한 것은 비록 先覺者의 [illegible] 十分의 同情과 및 敬忽이 잇슴을 도만흔 바이다 孔子와 耶蘇와 釋迦는 世의 稱하는 三聖이다 그러나 그 年齡에 關係되는 바 매우 深大하다 孔子ㅣ 十有五에 學에 志하고 三十에 立하고 四十에 不惑하고 五十에 天命을 알고 六十에 耳順하고 七十에 心의 欲하는 바를 조처 規矩에 넘지 안는다 하엿스니 註釋者가 聖人의 謙讓을 說하야 生而知之한 超人間의 的 存在로 보지 안는 것은 明言할 바 아니다 孔子는 常識의 聖人이다 그의 一生은 不厭한 努力의 畢竟은 聖을 稱하는 程度外지 圓熟하야 진 것이다 耶蘇가 三十에 비로소 愛의 [illegible]을 說하고 三十三歲에 磔刑에 遇하니 그의 公生涯가 넘우 短促하얏다 그 說한 바 매우 簡明直截하야 자못

天人의 際會를

昭昭히 啓示한 바 잇스니 이 잇서서 世界 多數人의 信仰을 어든 것은 비록 歐洲人의 政治的 背景을 賴한 바 만흐나 또한 그의 獨特한 啓示的 妙義에 基因한 바이다 그러나 그의 說한 바 자못 激越嚴酸하야 써 로 主角의 稜稜한 者잇스니 그는 비록 그 環境의 刺戟되바 잇스나 또한 年齡의 關係일 것이다 要컨 耶蘇는 聖人의 靑年氣銳한 者이다 釋迦가 二十九歲에 비롯오 出家하엿고 大雪山中에 苦行한지 六年이니 그가 衆生度濟하는 大獅子吼를 開始하기는 三十五歲의 때이오 다시 四十年間의 長歲月로써 到處에 利導說法하엿스니 그의 精鍊老實하야 幽深玄邃한 [illegible]와 雄健恢弘한 語趣로써 一切衆生을 度濟하는 態度를 보인 것은 또한 그의 特色으로서 外에 殊異한 바이다 昔者南山洞의 閔生이란 者잇서 幼에 奇히 穎悟하니 家人이 [illegible]니 八歲에 讀書하여 日甘羅爲相이라 한대 一家가 모다 驚嘆하엿다 後十三歲에는 外黃兒說項羽를 書하고 二十四歲에는 項王渡江而西를 書하더니 年七十에 오히려

貧家의 窮措大

를 免치 못한지라 歲首에 老妻가 爲하야 椽酒를 沽하여 日 또 壁上에 墨跡을 書치 아니하는가? 翁이 慨然히 盃酒를 傾한 後 抽筆하야 書를 日 范雎居家好奇計라 하고 黯然히 默하엿다 一篇의 諧謔이지마는 또한 人生失意의 悲哀를 보탤 이라 할가? 少하야 早成을 자랑하고 老하야 無償을 悔嘆함은 다만 一閔生뿐이 아니다 現下揚揚得意頭指天劃地하야 자못 眼空一世의 槪가 잇는 天下多少의 自負하는 靑年士女들은 또한 이에 戒懼惕勵함이 야 할 것이다 作心함이 잇서야 할 것이다.

米坑夫大罷業에 炭坑主持久對策

大統領도傍觀的態度

(나우엔二日發) 米國大統領『쿨릿지』氏는 目下炭坑夫의 大罷業에 際하야 坑夫側이 治安을 害하거나 又는 石炭의 供給現狀이 政府의 活動을 必要로 하기外지에는 決코 爭議에 干涉치 안키로 決하엿다더라 『펜실바니아』地方의 罷業者數는 十五萬八千名에 達하며 休業하고 잇는 鑛山이 八百二十八個所인데 炭坑主側에서는 現在의 石炭貯藏量으로는 來年一月外지는 繼續할 수 잇고 罷業의 影響이 十一月頃外지는 現著히 나타나지 안흘 것이며 이 其時外지 繼續되면 危險한 狀態에 빠지리라고 두려워하더라 이른게 되면 政務官과 坑夫一部幹部의 措置에 不滿을 抱하는 分子는 此를 機會로 爆發하는 危險性이 잇다고 觀測된다더라

政府不信任하면 議會를 解散

加藤首相의 決心

(東京電) 加藤首相은 第五十一議會에 際하야 萬一 政本兩黨이 提携하야 政府에 對하야 總括的 又는 部分的으로 不信任을 表明하는 時는 議會를 解散할 決心을 하고 잇다더라

政友會幹部會

(東京電) 政友會는 三日午後 一時부터 本部에 幹部會를 開催하엿는데 散會後 更히 岡崎, 山田中總裁邸에서 多額議員選擧, 政本合同 其他當面問題의 最善的方針에 關하야 協議하고 對策을 講하얏다더라

日本豐作無疑

主務省側觀測

(東京電) 農林省에서는 二百十日의 厄日인 九月一日도 無事히 經過하고 二百二十日의 天候는 至極的으로 佳良하고 氣溫도 昨年보다 二, 三度가 低함으로 農林省側에서는 平年보다는 一割의 增收는 無疑하리라고 樂觀하는데 此狀態로 二百二十日外지 繼續하면 豐作은 無疑일 것이더라

勞働法案 審議를 終了

(東京電) 行政調査幹事會는 二日午後一時三十分 官邸에 開催하고 前日에 繼續하야 勞働組合法案의 逐條審議에 入하야 同案全部의 審議를 完了하고 五時三十分에 散會하엿다

研究會의 苦悶

樂觀은 一朝의 夢

(東京電) 多額議員選擧는 旣히 十日에 臨迫하야 貴族院의 各派幹部는 一齊히 當選者를 自會派에 爭取하랴고 種種劃策中이다 就中 此問題에 熱中하기는 研究會로 同會가 水野直子以下四名의 政務官을 現內閣에 送한 主要目的은 此에 在하다고 傳하는 터일뿐 아니라 行에 著하고 보다 選擧의 趨勢에 出動하얏는데 此結果如何에 對하야는 今日의 形勢로는 勿論 的確한 豫想은 할 수 업스나 右研究會의 主張하는 바로는 研究會는 政黨派를 超越하야 是是非非主義로 終始하는 以上 政黨派에 入會하리라는 것은 不肯하는 議員은 모다 同會派에 入會하리라고 樂觀하는 中이다 그러나 萬若 此豫想의 反對로 現在員인 多額議員 十名外지는 全키가 어려운데

鐵道技術會議

大連에 開催中

二日부터 大連에서 開催된 技術會議에 對하야 朝鮮鐵道側에서는 岩崎機械, 衛藤運輸兩課長이 川府하엿는데 同會議의 主되는 議題는 左와 如하더라

一、連結器位移上期決定의 件

右는 中國鐵道의 車輛과 滿鮮鐵道車輛間에 連結器의 位置가 달러 連結不能하야 不便함으로 滿鮮鐵道車輛의 連結器와 移上하기로 하려는 것인데 滿鐵線에서는 이미 作한 것이며 滿鮮이 同一工事를 始作한 것이며 時期에 決行을 要할 것에 就하야 右時期를 協議決定할 件

一、將來新造할 鋼鐵車寢臺의 形式을 統一할 件

從來製作한 鋼鐵車寢臺의 形式은 大體에 잇서 滿鮮이 모다 『풀만』式이나 滿洲線의 所屬歐亞連絡列車用客車에는 『풀만』과 『맨드』式이 잇고 中東中國側에 多數는 『풀만』式이 되야 兩方이 모다 特徵이 잇서 一統一上 不便한 點이 업지 아니함으로 今後新造할 車輛을 如何히 할가 協議할 것이며

一、有蓋車扉의 盜難防止裝置를 設할 件

滿洲線鐵道以北에서 運轉中인 貨物列車盜難事故件數가 頗多함으로 此의 防止策으로 車扉에 特殊한 裝置를 施하려 함이오

一、直通列車에 使用하는 客車는 强度로 하되 同一히 할 件

直通列車는 比較的 高速度로 事故가 有할 時에는 危害가 甚大하리라는 想像으로 車體及寢臺等을 擴大하고 且 同一함이 可함으로 此案이 生한 것인데 現在滿洲線은 鐵骨, 朝鮮線은 木製인데 素材는 鐵製로 車體는 大部分木製더라

練兵町拂下解決

一日正式으로 結末

漢江通三番地府有地拂下에 關하야 京城府에서는 從來 府協議會의 決議에 依하야 各種의 要求를 하여 왓스나 이미 運動場의 工事도 漸漸 進陟하야 今日外지 支持하여 왓스나 府의 地圖 그대로 放置할 수 업는 事情이 잇서 一日이라도 速히 解決되기를 希望하고 잇든바 去二十九日 府協議會를 開會하고 府協議員 一同은 [illegible] 濟的으로 援助하도록 際이니 更히 幾分의 割引을 하라는 意見이 出한바 府로서는 乃至二割引하기로 決定하야 京城府에서는 右割引에서 更히 [illegible] 一日代表로 石原磯次郞氏外二名은 府尹을 訪問하고 正式으로 會見하야 右를 承諾하엿슴으로 兵營府有地問題는 解決하게 되엿는바 拂下地의 償還方法은 延長三個年賦로 하고 右割引에 依하야 府는 約六萬圓의 減收가 되엿더라

工程師學會一行

三日北京發渡日

(北京發) 日本工學會理事長 古市公威博士의 招待에 依하야 渡日하는 中華工程師學會長 顏德慶氏以下 二十七名의 技師一行은 九月三日 北京發渡日할 터이라더라

南大門羅市開始

中央物産會社에서는 今回 其經營에 屬한 南大門市場에 分羅市를 設코자 準備中이든바 來五日부터 開始키로 決定하얏다더라

辭令

任鐵道局技師(七等) 鐵道技手 森幸太郎
任道立醫院醫官(七等) 道立醫院醫師 岡本淸治
任道技師(五等) 地方技師 山內春雄
任朝鮮衛生技師(七等) 長和智海

人事消息

▲下岡政務總監 來年度豫算의 公債補充問題에 關하야 東京政府와 折衝하기 爲하야 來五日 京城을 出發하야 渡東하기로 決定되엿다고
▲石鎭衡氏(全南道知事) 八月卅一日入京 朝鮮호텔에 四日歸任豫定

商況 二日後場

仁川期米 朝米 比較表

今前止 今後止 比較
當限 三三、五 三三、五
先限 三三、六〇 [illegible]

當限 中限 先限
一節 三六、一〇 三七、二〇 三三、五五
二節 三六、三五 三七、四五 三三、九二
三節 三六、三〇 三七、五五 三三、八二
四節 [illegible] 三七、七〇 三三、九五
五節 [illegible] 三七、九五 三三、九五
六節 [illegible] 三七、九〇 三三、八〇

後場小返

前場 不味하게 場止한 機先大阪의 前後付가 未着이나 마침 筋買와 因하야 小弱히 於한 後 大阪上放入報에 買氣, 刺戟하야 七十五錢, 一昂, 하고 大阪의 强調에 低價突込筋의 熱이 出하야 七十錢에 吹하얏스나 買物이 不絶하야 八十七錢에 小殺하고 地場買로 八十九錢에 上向하얏고 ... 止가 三十錢으로 不變에 八十一錢으로 新하야 結局 八十六錢에 場을 止하얏는데

各限 後場 前場

▲賣方 ▲買方 先限 中限 (각 [illegible])

取組高 當限 中限 先限
出來高 一一〇〇 二四〇〇 一〇 二八〇〇
合計 [illegible]
累計 八〇四六四〇〇〇石

米豆餘話

▲昨日에 六十丁 今日에 七十丁의 士崩瓦落은 新米出盛期에 入하는 十一限의 本性이라 할것이다 그러나 한부로 下勢를 追從하다가는 狼狽에 歸하기가 十居八九다 ▲天候順調인 現下의 狀態로는 豐滿에 熱中하기가 容易한 일이지만은 今後 天候도 安心할 수 업거니와 人氣가 極度로 惡化한 그 反動이 잇슬 것은 必然의 事實 ▲그런데 昨年 同期의 十一限도 相當한 大納로 大會하엿섯스나 一昨의 凶作으로 早晩 豆行하기 때문에 結局은 疾風迅雷的의 反撥을 演하엿섯다 ▲此例에 依하면 本年도 昨年 凶作의 餘波가 업지 안한 時에 또 한 早晩하기가 容易한 일이 잇는 無謀히 賣繁하기 도 좀 不安할 듯 ▲어느 程度外지 反撥한 後에 瓦落한다 하면 心理의 되는 하겟지만은 急 直下의 續落은 반드시 一時的 反高가 잇슬 것은 疑한 事實

大阪期米 後場

當 中 止
一節 [illegible]
二節 [illegible]
三節 [illegible]

大阪氣配 三十七圓六十八

全地期米 後場

東京 三九、三〇 三九、三八
兵庫 三七、二五 三七、五一
下関 三五、五五 [illegible]
桑名 三八、〇七 三八、二五

突込賣는 躊躇 正米의 反響注目

(大阪電) 朝鮮의 米가 崩落됨은 그 割高임에 着目하야 當地 敵派

後場 期米

京取 一〇低 京取 一〇低 大新
(前場 價比較, 後場 價比較)

後場은 寄付가 大新同事 鍾新十錢高로 不變에 當地는 氣乘이 薄하야 京取가 一二十二圓丁, 大新이 八十三[illegible] 八十錢同値에 各一本이 잇슬 이 으로 無際中, 見送이다가 八十 後同事大引이 엇고 其外는 全部 不成이엇더라

株式 二日

京取短期取引 後場 初付 大引 高値 低値

京取 三〇〇 [illegible]
鍾新 [illegible]
大新 [illegible]

後場諸株步調

▲京取 三〇一 ▲大新 [illegible]

大新代引激減

大新은 本日에 買方各店으로 受株를 行하야 代引이 九百四十枚로 激減되어 日步도 五十錢으로 減하얏는바 取組內容은 如左하더라
賣方 大林三二〇 白井五〇 洪一一〇 吉見一八〇 田中二〇 李富二〇 定岡二三〇 金秀一九〇 南五九〇 買方 有田五〇 白井二〇 洪七〇 成淸一〇〇 新田一七五〇 白樂一〇 市川二一〇

取組代引算定日步

株名 取組 代引 算定 日步
京取 [illegible]
鍾新 [illegible]
大新 [illegible]
仁取 [illegible]
仁新 [illegible]
安取 [illegible]
朝紡 [illegible]
金剛 [illegible]

出來高

▲長期 ▲短期
累計 [illegible]

大阪長期株式

株名 後付 後止
紡鍾 [illegible]
同新 [illegible]
大株 [illegible]
同新 [illegible]
郵船 [illegible]
同新 [illegible]
商船 [illegible]
同新 [illegible]
日糖 [illegible]
東紡 [illegible]

大阪短期株式

後場 初付 大引
鍾新 [illegible]
大新 [illegible]
大株中引 [illegible]
大株新 [illegible]

大阪短期步調

▲鍾新 [illegible] ▲大新 [illegible]

大阪短期氣配

鍾紡新 百二十四圓九十錢
大株新 八十三圓七十錢

東京現株

東株 同新 [illegible]
鮮銀 同新 [illegible]
殖銀 同新 [illegible]
滿鐵 同新 [illegible]
東拓 同新 [illegible]
滿毛 [illegible]
富士紡 [illegible]
甲五利 [illegible]

海外經濟 二日

倫敦銀塊 三二片八分七
英米爲替 四弗八五仙八分七
米棉 [illegible]
印棉 [illegible]
스티그株 [illegible]

商況

東京 金融 二日

日本銀行券

發行高 [illegible]
準備高 [illegible]
發行餘力 [illegible]
貸出高 [illegible]

日本金利

東京 大阪
無條件 [illegible]
翌日拂 [illegible]
普通物 [illegible]
月越 [illegible]

大阪三品 二日

限月 後付 後止
九月限 三二〇二〇 [illegible]
十月限 [illegible]
十一限 [illegible]
十二限 [illegible]
一月限 [illegible]
二月限 [illegible]
三月限 [illegible]

綿絲 二日

橫濱生糸

前 當限 止 二〇二五〇〇 後付 二〇二二〇
先限 二〇六四〇 二〇五九〇

麥作實收와 小麥의 目先觀

鈴木商店宇野田主任談
麥의 主産地인 黃海道平安南北道方面의 實收高視察中이든 鈴木商店宇野田氏는 如左히 말하더라 非常한 豊作을 豫想하든 黃海道의 小麥作은 實收豫想發表後 全朝鮮에 亘한 末會有의 大降雨로 被害를 生하야 小麥結實에 及한 惡影響도 相當한데 目下 出廻中인 小麥의 調製時期에 就하야 雨前과 雨後로 區別하야 調査하면 雨前에 調製된 것은 約四割, 雨後에 約六割이 事實로 보아 今年의 麥의 品質이 如何히 昨年보다 不良한가를 窺할 수 잇고 더욱 南川金郊에서 海州東西에 亘하야는 品質이 下落하야 檢査에 不合格한 것이 相當한 模樣이다 다만 新幕以北의 沿線各驛並黃海道의 中北部는 大槪良好하나 此亦例年에 比하야 粗劣한 貌樣임으로 總括하야 數量上으로 보면 約豫想보다 十二三萬石減收로 觀測할 수 잇는바 農家에서는 昨年中高價金融狀態良好로 因하야 安價에는 賣치 안코 高價期待의 傾向이 顯著한 關係上 大勢에 多大한 變化가 업는 限에는 朝鮮麥의 前途는 特別한 低落은 期待키 困難하겟다云云

正米益益低落

期米의 暴落을 伴하야 京城市內의 正米도 低落에 低落을 加하야 末以來의 京畿三四等市場는 大體如左하다

三等 四等 地摺上
月末 四〇、八〇 三九、四〇 三八、五〇
一日 四〇、一〇 三九、〇〇 三八、〇〇
二日 三九、〇〇 三八、四〇 三八、〇〇

白米는 市中小賣는 四十九錢에 變함이 업스나 公設市場은 今日부터 五厘引下인 四十八錢五厘로 하고 都賣四十六圓五十錢과 手持原料의 關係로 不變이나 其中에는 賣急하는 者有하야 四十五圓으로부터 五圓五十錢에 賣함으로 自然競爭的으로 價格을 引下하리라더라

고무暴騰

頃日來漸次高步調를 呈하든 고무는 本의 在荷薄과 亞美利加의 買進旺盛으로 一擧十五錢高의 急騰을 示하야 本日 神戶買價大十五錢을 唱하고 當地는 二圓十錢以下의 賣物이 업고 賣氣는 內外共히 旺盛하더라

▲夏繭市勢 (繭産高入荷)

江原道春川 二日 乾繭一石에 日本種 最高 八十五圓 最低 五十一圓 普通 六十三圓 / 麟蹄 交雜種 最高 八十五圓 最低 五十一圓 [illegible] 一圓買 [illegible]

水災義捐金

조선수해구제회에 온것

金二百六十五圓 佛敎婦人救議會會長伴田富士外十七名 金一圓 橫濱市西戶部町川口妙法 金二圓 東京日本橋 一婦人 金二圓 同 無名氏
(中部洞)
金百圓式 朴泳孝 尹德榮 金五十圓式 李夏榮 閔丙奭 金四十圓 金丸武 金三十圓式 [illegible] 延禧 閔商鎬 嚴俊源 金二十圓式 閔泳瓚 趙鎭泰 尹甲炳 金二十圓式 柳球奮 兪星濬 康仲模 劉猛 金十五圓式 李夏榮 南奎熙 趙久熙 柳正秀 申應熙 元應常 金錫泰 鄭庸學 徐丙朝 金其部 山崎義雄 朴箕陽 金十圓式 金榮漢 李謙濟 申錫麟 尹錫弘 徐相勛 魚允迪 閔衡植 韓相鳳 閔泳敏 李根宇 金七圓 金東乘 金五圓式 金漢睦 申家游 朴齊璣 權泰煥 金命圭 吳在豊 羅壽淵 宋之憲 閔健植 鄭丙朝 李晩奎 金顯洙 玄櫽 朴宗烈 韓永源 金明濬 宋鎭憲 李東雨 柳承欽 金甲淳 尹致昭 朴基順 鄭淳賢 盧蒼顔 鮮于鎬 康秉鈺 李澤鉉 皮性鎬 金三圓大原利武 金二圓式 渡邊業志 金子正潔 葛城末治 麻生武龜 管野銀八 岩谷武市 楫晶圭 金聖睦 奧谷煥 金一圓五十式 江原善植 金敦熙 朴承章 尹喜求 柳鎭赫 沈鍾舜 洪奭鉉 金明秀 齋藤利三郎 金一圓式 金容迪 朴正銑 金澤基 李寅洙 張行遠 鄭鳳時 趙鏞夏 趙漢克 金定鉉 鄭萬朝 金六十錢 金淳鼎 金五十錢式 吉井義司 金完珪 金東燦 金秉郁 姜信文 梁世煥 沈永億 權炳疇 李錫雨 金容晉 李完根 金容直 趙東虎 李復珪 安禎國
(禮智洞)
金三十圓 申鉉宇 金十圓式 金永斗 孫富順 李熙文 韓性源 金天祜 金五圓式 李圭玉 申應求 李晉鎔 兪琡濬 劉猛 金三圓式 趙應道 金宙澤 成聖煥 金二圓式 金素 太德歡 李鍾源 金景俊 丁熙榮 金鍾煥 禹昌榮 片炳圭 金一圓 鄭光子 李鍾泰 李基浣 金公先 李承九 李舜鵬 金慶子 趙漢鵬 李應彥 吳應奎 趙性琮 李源鎭 劉景烈 劉奭烈 李東華 李致文 李致雲 金鍾元 尹壽容 成聖天 鄭在榮 文應燮 尹淳澤 趙東考 成聖賢 金景泰 權翊柱 片召史 鄭元楨 李在寬 金正楨 金聖根 劉鉉 李全卯 金麟鶴 金永楨 金八十錢 崔聖萬 金五十錢式 姜鶴熙 李喜貞 兪英淳 李元來 方順權 吳興俊 李昌源 金鍾洙 高昌楠 李鍾天 姜元善 洪永敏 丁熙鎬 玄炳植 李春協 李基完 李爾夏 李圭浩 黃明休 李昌奎 金奎容 朴容璨 林基成 徐東漢 韓相箕 李恒雨 安敎庠 趙德元 朴容爽 崔翊聖 李起馨 李戴彥 申先奉 金鳳澤 吳振龍 金泰鎬 金成 李南成 安應鎭 馬斗成 朴春玉 李元善 朴召史 朴泳姬
(昭格洞 松峴洞)
金二圓式 宋敬儀 金鼎漢 金一圓式 尹泰燮 尹鍾榮 嚴順成 趙河亨 金聖集 稻葉中 黃昌煥 金六十錢式 李昖煥 金景漢 金五十錢彰樂周外十六名分 金三百十七圓七錢 漢城銀行本支店行員家族一同 金五圓 崇重建洞 金二圓 製花洞 福興鐵工廠 金五百圓 京城電氣株式會社有限 金一同 金十四圓 金弘珠 金二十槿相植 累計 十五萬九千七百八十五圓 四十四錢

(公州地方法院及管內職員)
金五圓 石村義太郞 金四圓八十錢 竹尾義磨 金四圓五十錢 賀屋市 金四圓 新井胖 金三圓七十錢 式矢本正平 柳原茂 金三圓十五錢 橋本恒五郞 金三圓 式木村鏡次郞 石原今朝八 金二圓八十錢 石黑義夫 金二圓五十錢 三苦幸太郞 金二圓四十錢 永田顯士 金二圓十錢 森田賢宗 金二圓式 宮崎速任 山本正德 金谷若太郞 岡本鉄七郞 金一圓九十錢 式上野義治 井上美之輔 神浦海 金一圓六十錢 山中惠太 金一圓五十錢式 升用 本常一 大場久一 渡邊藤次郞 本德助 金一圓四十錢 岡又三郞 金一圓三十五錢式 則岡 種補 柳拔 金一圓二十錢式 高津秀彥 江上常太郞 中津敷彥 原野俊 頭 山本定一 武德政雄 田中篩次郞 吉留 淸次郞 金一 圓十錢 森元二郞 金一圓五錢 宮岡知 金一圓式 李昌赫
(大和町二, 三丁目)
金二百圓 岩谷義子 金三十圓 廣江澤次郞 金十五圓 淵上貞助 金十圓式 佐佐正 西四過公堯 金五圓式 加藤 片村庄次郞 金四圓 金三圓式 佐藤 白鳥康介 河田龍右衛門 井龍馬 金二 式 江里口要吉 石丸齊一 井形九八 太田正直 赤荻龍郞 榎本榮 渡邊淳 小倉龍太郞 菊地完敏 金八圓五十 閔淳 金一圓式 靑木留一 富永 錢無名 金一圓 義州公立小學校 中原二 金五十錢式 同奴田原義一 稲村三千穗
金二百八十三圓六十五錢 橫濱市 橫濱貿易新報社扱
外六名
(京城帝國大學豫科)
金十五圓 小田省吾 金十圓 戒野義重 金九圓式 年岡騰市 福富一郞 黑田幹一 金八圓式 森爲三 高田眞治 名越那珂次郞 田中梅吉 津田榮 金七圓式 近藤時司 山邊曉之 金六圓式 藤井秋夫 山本六郞 小西英一 金五圓式 兒玉才三 橫山將一郞 金三圓 野口利一郞 金二圓式 石戶谷勉 時任丈夫 荒內眞佐治 岡崎俊二 金一圓五十錢 狩野吾三郞 金一圓 和田義朗 金五十錢 式 林成綠 高島太郞 末田晃 阿部憲三 黃島象治
(水原高等農林學校)
金五圓式 植木 秀幹 高橋宇一 鈴木外代一 川口濟利 中島友輔 松尾茂 廣田豊 葛野淺太郞 立山軍藏 金一圓八十四錢 式 飯村俊 中原永一 山林通 金一圓二十六錢式 芥彦武 和田 正三 西村久三郞 金一圓二十 錢 齋藤孝藏 金九十六錢 中島彌市 金八十五錢 趙伯顯
金三十錢 中山 齊 金七十錢 三浦義忠 金五十錢式 梅田縣秋 奥村敏秋 元鎬俊 上森嘉兵衛 渡邊猿男 和木正一 助田喜一郞 岡田玉宮 石原重雄 阿部定治 山中一樹 菊地弘 和田正知 金九十一 永瀨三郞 金八十錢式 山下種良 井澤寬 森齊城太郞 市稅吾 金世傳夫 藤崎宗雄 上山佳夫 菅野興次 洪顯裕 金七十五錢 式 金鍾鍋 吳完圭 金七十二錢 小川眞隆 金 十錢式 成天永 林濟圭 趙泰會 尹敎舜 鄭奎數 金六十五錢式 丁元燮 金雄錫 兪錫翰 金六十錢式 陳德 李南圭 金五十五錢 白演城 金鍾九 鄭漢玉 崔永福 申致熙 金二圓六十錢 白南圭 外七名
計 二千四十九圓四十七錢 累計 十五萬八千五百十五圓十 六錢

砂糖에 麥粉석근 暴利奸商의 日人
경찰서에서됴사에착수 일반은경찰의태도주목

진주군진주면 대안동 칠십삼번디(晉州郡晉州面大安洞七三番地)에서잡화상겸 질옥(質屋)영업을하고잇는 일인유뎐무웅(有田武雄)은지난봄 사탕(砂糖)에다가 맥분(麥粉)을석거가지고 다수한고객에게 만흔폭리를 취하고 팔은일이잇섯다는데 고객중 한사람인 당디진명회원장 리종텬(李鍾天)씨가이것을발견하고일반에게발표하야 속지안토록 하얏더니 이사실을탐지한 경찰서에서는 도암고 지난이십팔일에 리종텬씨의 집에이미사다두엇든 사탕을가저가는등 여러방면으로 됴사에 착수하얏다는데 일반주민은 그상인에대하야 원망이적지아니하며 경찰의 태도를 매우주목한다더라(진주)

橫城人士同情
수해동정금

삼십삼원을보사에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풍수원리(橫城郡書院面豊水院里)에서는수해동정금으로 삼십삼원칠십전을 본사횡성지국을거처 보내엿는데그씨명은아래와갓더라
鄭神父十圓 宋鉉玉五圓 崔樂神父三圓 李鍾三圓五十錢 金鍾錫 金樂浩 元濟奎 金東赫 宋在衛 方在先 韓秉天 各一圓 韓泰熙二圓 曹寅煥 崔光涉各五十錢 元濟善六十錢 宋在植 金希偉各三十錢 朴泰厚 崔相鍾 金召史 李炳元 各二十錢 李鳳成十錢 計三十三圓七十錢

密輸犯人脫走
세관이비어든틈에

평북신의주로송뎡(老松町)에거주하는김구진(金九鎭)(二六)과구의주(義州)에원적을두고현재평안북도령에 근무하는 리재건(李載乾)(二三)은지난이십삼일에신의주세관(稅關)에검거되엿다는데 자세한내용은아즉알수업스나 그들두사람은 종종 안동현(安東縣)등디에래왕하며 주단(紬緞)가튼여러가지물품을 밀수입하야오든바 아와가티발각되야 검거되엿는데 지난이십팔일 새벽에는압록강(鴨綠江)세관압흐로밀수입배척이 지나가는것을보고 압수코자 세관원권부가나아갓든바 권긔두사람은 이와가티세관권부가비인틈을타서도주하야 종적을감추엇다더라(신의주)

中國官憲의壓迫 哈市에도去益甚
가택수색을무리하게하며 남녀물론하고구타가일수

할빈도외(道外)에는 우리동포가 호수로백여호 인구가삼사백명가량이 거류하는데 중국관당에서는 무자비하게도 압박을하는중 축출까지하려는계책으로 시시로 중국관리는 동포의집에침입하야 가택을수색하다가 물품과금전을 탈취하는일이 잇는바 만일 조곰이라도반항의것 가트면 더욱이나 무리한행동으로남녀물론하고 구타하며 심지어 박승으로결박까지하는일이종종 잇는중 지난팔월이십사일에는 도외륙도가(六道街)김규성(金奎成)의집에 관민십여명이몰입하야집을수색하다가 공연히 김규성의모친을구타하야생명이위태하게까지되엿후에는제각금헤여저갓는데그후알어본즉돈도백여원이나 훔처가지고갓다하며 또도외 북사도가 고려삼성양행(北四道街高麗三星洋行)에도 관리가와서 상뎜간판을 파렬하며퇴거명령을 나렷슴으로 일반재류동포는 매우불안한중에잇스며 중국관리의 무리함을 비난한다더라(하얼빈)

◇……가을바람에락엽질때도멀지안타……◇

講演禁止理由는 共產主義宣傳
革淸團巡講隊 부득이중지하고 도라오고말엇다

무리한 경찰의압박과 모진떠위를무릅쓰고 사상을선전하기 위하야 경성한디방각처로 순회하든혁청단(革淸團)순강대일행은 지난이십이일에경북봉화(慶北奉化)에서강연을마치고 춘양면(春陽面)으로향하려할지음에뜻밧게경찰부의 간섭으로 경북디방의순강을 금지당한바 동강연대일행은 경북경찰부에 질문코저 대구(大邱)로향하엿다함은긔보한바와 갓거니와동대대표 권태휘(權泰彙)씨는경북경찰부장을면회하고 금지의리유를 무른즉부장은 말하되급진뎍 공산주의(急進的共產主義)를선뎐함으로 금지하엿다 [illegible] 중지하고도라왓다더라(안동)

八歲兒溺死
부친을딸하가서 강물에서놀다가

전남화순군동주면 회덕리(全南和順郡綾州面會德里)윤병환(尹炳煥)의장남재텬(在天)(八)은지난이십륙일 오전에 자긔집에서 한십뎡쯤되는 영벽강(瀛碧江)이란곳에 보역사를 하려가는그의부친을 딸하가서 목욕을하고 놀다가 종적이업슴으로 그의부친은 집으로간줄생각하고 저물게야 집에와서보즉 집에온흔적이업슴으로 그제야 의심이나서 마을사람들을 이끌고 강변에가서본즉 파연의복만 강변에노히고간곳이 업슴으로 밤이맛도록 강중을 수색하얏스나 시톄를찾지못하얏다더라(릉주)

郵便所長이 公金三千圓橫領
횡령한사실이발각되여 일인소장은경찰에데포

황해도옹진군 부민면 강녕리우편소장(黃海道甕津郡富民面康翎里郵便所長)도뎐정마(島田靜馬)는공금(公金)삼천이백팔십륙원오전을횡령한사실이 발각되여강녕경찰관주재소순사에게 데포되야일일에옹진경찰서로압송되엿는데 그공금횡령사실이 발각되기는경성톄신국(遞信局)원이 그우편소에가서 문부됴사를한결과이라한다(해주지국면화)

變死者三人
모다물에빠저

부천군남동면(富川郡南洞面)사는 강희신(姜熙信)(一二)이라는 보통학교생도는 지난 팔월이십륙일에 염뎐(鹽田)에서 목욕하다가 참혹히 빠저죽엇다하며 ▲부천군 계양면박촌리(富川郡桂陽面朴村里)사는리윤텬(李允天)은 지난팔월이십칠일에소의 발을비러갓다가도라오는길에실족하야강물에빠저죽엇다하며

空家에 怪屍體
영양부족인듯

지난일일오후에 인천궁뎡(仁川宮町)일인의빈집에서 나이륙십세가량된 조선사람의 사톄를 발견하얏는데 그죽은원인은 얻어먹든사람이 도라다니다가 나이는만코 영양부족으로 죽은듯 하다더라(인천)

女子의 衣服을 가지고도망타가
필경경찰서에

파주군 림진면 문산리(坡州郡臨津面汶山里) 최덕룡(崔德龍)(二九)은일일오전에 의정부(議政府)로부터 경성으로오는도중에 양주군(楊州郡)산다는 리씨(李氏)라는 녀자로부터옷세벌(衣服三襲)을드러다주마하고들고오다가그대로 다러낫스나 시내에드러와서 오후한시경에 동대문서원에게 데포되엿다더라

有夫女가 自意賣身
삼백원을바더서 반액은남편에게

황해도안악군안악면판팔리(安岳面板八里)삼백삼십사번디 정태익(鄭泰益)의아들치련(致鍊)(二五)은 작년가을에 조용조(曹龍祚)(一九)라는녀자와 결혼하엿든바 십여일을지내여 그녀자는 아모말도업시 그집을떠나 자긔의이모(姨母)의집인고모(高某)의집에가잇는것을그시부되는정태익이가 다려온바 그후부터그녀자는 그남편에게 정이업시지나다가 지난팔월이십오일경에 그부부간 서로말다툼을할쌔에 그남편이 자긔의머리를 잡엇다고『내가우리부모에게도 이머리털을잡혀보지안이엿는데 남편이무엇이기에 내머리를 함부로잡느냐』하고 가위로그머리털을 잘라버린 후 곳자긔의 이모친고모의집으로가잇스면서 동리(同里)에사는채룡구(蔡能九)라는사람에게 말하야자긔를 료리집에팔아달라함으로 채룡구는 동군동면훈련리(訓鍊里)에서료리업하는김태섭(金泰燮)에게팔아돈삼백원을 바더 일백오십원은자긔본남편에게주고 남어지 일백오십원은 자긔친정부모에게 주고 [illegible]

組織的窃盜團
종로서에검거

이일오후일곱시경종로경찰서사법계에서는 구보(久保)경부보이하 정사복순사 형사가 총출동하다시피하야 모방면에 출동하야 [illegible]명의 계원을 인치한후 즉시세명을 엄중히취됴하는동시에 정사를 계속하는 한편 [illegible] 사건을 비밀에 부처발표하지아니하나 사건인즉 시내모처에 절도단본부(窃盜團本部)를두고 시내각처로 도라다니며 절도를 상습뎍으로한 범인을 일망타진하려고 그가티 활동한것이라더라

[illegible]이잇다더라(안악)

森信商會航路를
침해한인천긔선회사에는 조합회에서별반조처방침

긔보=강화삼산상회(江華三山商會)에서는 오래전부터 인천(仁川)과황해도 백석포(白石浦)간항해권(航海權)을 [illegible] 해운영업취톄규측(海運營業取締規則)에의하야 항로(航路)를 개척하고 만여원의자금을드려서배를 사서 [illegible] 와지만돈후이래

수년간

영업을계속하여 오던중인천긔선주식회사(仁川汽船株式會社)주인뎐중(田中)은 경긔도(京畿道)에 인천백석포간항해 허가원을 데출하고동시에즉시로 영업을 개시하야삼산상회의 권리를 침해하엿슴으로 삼산상회에서는 조선항로취톄규측(朝鮮航路取締規則)에의하야 영업을하는중임으로 삼신상회측에서는그부당한권리침해를

도당국

예진정하는동시에그하회를기다리는중 일일오후삼시경에 동상회주임(主任)고성근(高成根)리훈석(李訓奭)양씨가경긔도보안과장(保安課長)백석(白石)씨를방문하고 [illegible] 보안과장은 [illegible]

사정을

자세히됴사하야 양편의 손해가업도록 할터이니 안심하라고하엿다는데 이에대하야 리훈석씨는 말하되아직우리는 아모말도하지안코다만 도당국의정당한처치만바람니다 하엿다더라

鐘路署管內 傳染患者二百

최근호렬자(虎列剌)소문이일반의가슴을 놀나게하는데 시내에 삼십일일현재의 다른뎐염병(傳染病)상황은엇더한가? 이제종로경찰서에서됴사한바삼십일일현재의 상황을보면 대개아래와갓다
▲합계二百二十二 ▲바라지부스六▲ 赤痢三十二▲腸窒扶斯一七四▲猩紅熱八▲ 發疹窒扶斯一▲지부데리아一

이상과가티이백이십여명에달하야 작년요사이에비하면 그발생률이 매우심한터인바로서 하뎡(夏井)위생주임은 말하되「요사이로날마다 사오명의환자가 발생되는터에 그들환자의대부분이 장질부사입니다 하여간 병세는점점더하여가는 모양인즉 매우염려가되는터이며 더구나환절긔(換節期)인이때에일반은 극히주의할이 조흘것갓슴니다」하더라

密賣犯 모히 八名을一網打盡
종로경찰서의활동으로 신사학생상인등을데포

종로경찰서에서는 일일오후세시반경에 사법계원이총출동하야『모히』밀매단(密賣團)을 발견하고 혐의자로양복입은 신사한명과 모고등보통학교생외에상인(商人)로동자각계급에관한 사람여덜명을 혐의자로 동서에인치한후 목하엄중취됴중인데 사건의 진상은자세히알수업스나 국외로부터『모히』를가저다가 경관의눈을 속히여가면서 밀매한것이라는바 사건은 의외의 방면으로 던개되리라더라

看板窃盜逮捕
일일종로서에 여죄가만흔듯

주소부뎡한권롱뎡 김남구(金南九)(二六)는삼십일밤에 동대문밧 조선견직주식회사(朝鮮絹織株式會社)와조선제사주식회사(朝鮮製絲株式會社)의주식간판(鐵製看板)을각각한개식떼어다가신설리(新設里)뒤산속에 파뭇더두고 그권부터 던막이잇는『엿장수』김주원(金周元)(三六)이란자에게팔고자 일일오후에 항의신설리에나아가서 그것을 파내가지고시내로도 팔오다가 종로서원의손에데포되엿는데 텬두자와여죄가만흔듯하다더라

電車脫線
일일오후세시 탑동공원압해서

일일오후세시경에동대문으로향하는일백륙십삼호뎐차가 탑동공원(塔洞公園)압신설(?)에서 [illegible]

新設里에盜賊
팔백원어치를 훔치고잡혓다

긔보=이일오전두시경에 동대문밧신설리(東大門外新設里)일백삼십이번디최우식(崔宇植)의집에졀도한명이침입하야의복등을위시하야여러가지물품팔백여원어치를훔처가지고도망하엿슴으로 그집에서는 즉시소관 동대문경찰서에도난계를하엿든바동서에서는부내광희뎡(光熙町)일뎡목김재협뎐당포(金在協典當舖)에뎐당잡히고간물품의묘단서를 어더그절도범인고양군숭인면룡두리(高陽郡崇仁面龍頭里)리봉인(李鳳仁)(二二)을데포하고또 전긔봉인의 삼부를한 황금뎡일뎡목사는녀자안택수(安宅洙)를 잡앗는데 장물의 반수는 도로차젓다한다(숭인)

詐欺取財한 興信社事件
뎐보경에대하야 징역이년을구형

시내원남동(苑南洞)이백사번디소림정삼(小林正三)(三八)주교뎡(舟橋町)백륙십이번디 뎐보경(田寶瓊)(三二)두명은동모하고한편은 자금도업스면서 작년오월상순경에 주교뎡사십삼번디에 경성흥신사(京城興信社)를설립한후소림은사장(社長)이되고뎐보경은주임이되어 금

太平洋上에서 米飛機去處不明
구축함이방금수색중

미국해군수상비행긔두대는예뎡과가티 삼십일오후세시 사십이분경에 상항(桑港)을출발하야 포와(布哇) 진주만(眞珠灣)으로향하야 무착수비행(無着水飛行)의길을떠낫는데 그항뎡은이천사백리(哩)라하며 그소요시간은 이십륙시 구분의 예뎡이잇든바 그비행긔두대중 한대는 불행히 도중에서 불시착수하엿슴으로 그를시찰수던비행긔를수색하기위하야 구축함(驅逐艦)을급파하엿다는데 그비행긔는『하와이』까지의 비행항로를 경계하고 잇든구축함부근을 지나간후아모소식이업다더라(상항뎐보)

羅災學生救助로
교과서배부

수해리재학생구호회(水害罹災學生救護會)에서는 지난번수재로교과서(敎科書)를류실한아동을위하야 보통학교 교과서각학년을통하야 이천백오십칠권과, 심상소학교 고등소학생을 위하야이천세백십팔권을 경성부에보내여 책이업서공부를 하지못하는어린학생에게나누어달라고 하엿다더라

生活難으로
죽은아이를 뒤산에무더

인천화평리 삼백오십번디(花平里)공락원(孔洛元)의 동재원거은간난(小千㝚)(一)이가 병에걸리어 신음하다가 지난달이십칠일에 죽엇는데 원악집이가난하야매장허가를 내여가지고 영솔자서 무둘가망이업슴으로 그날

無理한 日人地主
알에논에물을 대이지못하게한다고

전북김뎨군금구면경운리(全北金堤郡金溝面卿雲里)압들에는 국유부디(國有敷地)의개천안에 못이잇서 그미테잇는 근이십뎡보(町步)의논에물을대여오든바 지금으로부터 삼년전에 그동리[illegible]의한부분이일본사람 포강달이(浦岡達二)의소유가된뒤로 동리사람이십일번디를 거처하면로못하게하야 그로미테잇는종래에물을대이든 논은 한편의물도 대일수업게되야버리로 일인과분쟁이 일어나고그일인의 무리항을 말하야오든바 지나이십오일경에 그에관계되는농민송유필, 송선중(宋先中)등[illegible]은 련서하야 김뎨군뎡에 국유하천부디(國有河川敷地)에 물을 대는 돌을파서통하게하기위하야 수로공착 허가신청(水路開鑿許可申請)을데출하엿다더라(김뎨)

從兄弟共謀壓殺 女婿요姦夫인債權者를
돈바들어온자를죽인사실 경찰서에서발각하야취됴
固城에서發生한日人慘劇

란거며한 금액으로 고리대금업을하는중이라는데 멧해전에그의 사위되는 강산현천구군(岡山縣淺口郡)에잇는원뎐원일(原田源一)(四?)에게 돈얼마를 무어준일이잇스나 아즉한푼도갑지안엇슴으로 돈보내라는원뎐(原田)의편지도여러번밧고 직접으로 원뎐이가차자오기도하얏스나

원래돈이

라면체면불고하고덤비는진뎐이라채금(債金)은고사하고 차비한푼도 주지안햇슴으로 두사이는년래로 조치못한악감이생기엿든터인데진뎐의사위되는권괴원뎐원일과진뎐의재처(再妻)대산(大山)(三?)이원적을강산현천구군(岡山縣淺口郡)에두고현재경남고성군마암면도뎐리(固城郡馬岩面道田里)에거주하는진뎐가태랑(鎭田嘉太郞)(六?)과 그의사촌아우인 진뎐수일(鎭田秀一)(二?)두명을 지난이십오일 고성경찰서에서 검거하야『살인범』의죄목으로목하엄중히 취됴중이라는데 그내

고심다문

한바에의하면 진뎐가태랑은 방금 오십만원이가비밀히 [illegible]

추한관계

를두고지내든 [illegible] 시작되자 진뎐원뎐두사이

의공긔는 자못험악한중에 잇섯다하면돈보내라는 원뎐(原田)의청화가튼독촉은 진뎐으로 하여곰 무서운사실을 꾸미게되야 지난

팔월중순

에진뎐의집을 차저온 원뎐이가 멧칠류하는동안 진뎐이와재차사이가 조케되엿슴에도 불구하고 전긔진뎐가태랑과 진뎐수일두명은 공모하고 지난이십삼일 오후세시경에 원뎐이를 고성읍으로 다리고와서 술집에가서 술을권하야잠복취하게 먹인후또다시 진뎐의집으로 불고가서 술을권하야사람을 몰라보게 취도록먹이고구석방으로

들어가서

자리에눕게하고 지난이십사일 새벽두시경에 진뎐 의사촌형데두명은 미리부터 틈에떼거두엇든 솜으로원뎐의입과 코를틀어막고 십분동안을으로 잇슨결과 그만무참히 죽어버렷다는데 날이 새이자곳 배둔(背屯)에잇는

모의자를

청하야검시한결과 압-틀의중독이라함을 긔회로[illegible]화장장(火葬場)으로메고가서 곳살러 바렷다는바 이사실을 탐문한 고성경찰서에서는 사법계원들이 현장에 달려가서엄중히 됴사한결과 혐의자로 전긔 두명을인치 취됴중이라는데사실을전부자백하엿다더라(고성)

全朝鮮自轉車秋季大競走會

一、期日 來十月三日(土曜日)(雨天順延)
一、會場 奬忠壇公園그라운드
一、申請所 京城本町一丁目朝鮮自轉車商會內 朝鮮自轉車選手會
一、申請期 九月一日로同二十五日까지

主催 서울輪業會
後援 朝鮮日報社

발뎡두시경에하야그동리뒷산에다 뭇어버렷는데 그사실이 발각되야지난팔월중에인천서에서검거취됴중이라더라

無理한廢業勸告
내유은사정이잇다고

경남고성 배둔주재소 순사부장 산구모(山口某)는 당디청년리발관(靑年理髮館)에 대하야 무리히 허가를 취소코저 별별수단을다쓰며 [illegible]이라는데 그내용을들은즉 배둔(背屯)모(某)가 리발관을 신설코저 고성경찰서에허가원을 데출하엿스나 경찰서에서는 좁은디방에 리발소가 여러곳잇는것은 조치못한일이라하야 허가할수업다고 거절을당하엿다는데 그뒤부터는 배둔주재소 순사부장은 청년리발관주임 구순갑(具淳甲)에게 너는재산이 넉넉하야 리발을하지안흘지라도 생활이 넉넉하니 의쓰든 리발긔구전부는 리발신설자모에게 매도(賣渡)하고 하로밧비 폐업신청(廢業申請)을 하는것이 피차간조흘일이라는후「만일폐업을하지안흐면 강제로 폐업이라도시키겟다」고권고겸위협것말을하는바 청년리발관측에서는 불평을토한다더라(고성)

兄弟間에 칼부림
형이나무랫다고

시내 길야뎡(吉野町)일뎡목구십오번디 양화직공(洋靴職工)리춘근(李春根)(三三)은 구월일일오전에 자긔의형 리광운(李光雲)(三?)과가티 안저서 음식을먹다가 형데간말다툼이 이러나서 리광운은 그아우리춘근을 약간꾸지람하엿든바 리춘근은 그형에게 마진것이 분하야 구두고치는데쓰는칼로 그형의억개와 기타여러곳을 함부로찔러 약사주일동안치료를 요하는 중상을당하엿다하며 그것을 중재코자하든 길야뎡일뎡목 일백삽번디 최귀봉도역시 리춘근의 칼에 중상을 당하엿다는데 가해자 리춘근은즉시 본뎡경찰서에 인치되엿다더라

稀有의 大窃盜
피해액이 오천여원

평양경찰서 사법계에서는 멧칠전부터 활동을개시하야 가지고 경성(京城) 방면으로 형사두명을파견하야 홍모(洪某)(三?)라는절도 피의자한명을 데포하여가지고 나려온후 삼십일에는김(金)형사의 손으로 부내에서그 공범자 리모(李某)한명을데포하야 지금엄중한취됴를 진행중이라는데 권긔두명은 모다이범(二犯)의 전과자로 오인조(五人組)의 절도단을 조직한후 그본부를 중항인에두고 평양(平壤) 인천(仁川) 원산(元山) 개성(開城)등디로 도라다니며 교묘하게 절도업을 전문하엿는바 그피해총액이위선지금 드러난것만 오천여원에 달한다더라(평양)

府營住宅에
집세를나렷다

룡산련병장(龍山練兵場)에잇는 부영주택(府營住宅)사십채의세집은한채에 월개월 팔원오십젼식밧던것을 지난오월부터 이십이원식갑을올리어바더오던바지난번 수해도잇섯고 또일반집세도나리엿슴으로팔월분부터 다시집세를나리엿다더라

大膽한窃盜
백주에렴얼가마니를 이웃집으로옴겨간자

지난이십칠일황주경찰서(黃州警察署)군무하는김형사가 룰연히겸이포(兼二浦)유곡리사산에서수상한청년한명과 엄더져끔을 한후약한시간만에 데포하야 방금 황주경찰서에서 취됴중인데 이제그자세한 내용을듯건대 원적 황해도 해주군남문밧(黃海道

五歲少女溺死
개천에서시톄발견

전북금산군남일면 성곡리(全北錦山郡南一面星谷里)김병긔(金炳基)의장녀 몰분(沒分)(五)은 지난이십오일 오후한시경에 몰연히 집을나가서 도라오지아니함으로 놀내여 사방으로찾다가 마츰내 동월오후세시경에 동리압헤잇는 깁가가 삼쳐이나되는 개천에서 시톄를 발견하엿다더라(금산)

◇集 會◇

◇張勃氏歡迎會 이번구미에서 미술을공부하고도라온장발(張勃)씨의환영회를경성에잇는청년화가의주최로오는사일오후다섯시에 남대문통식도원(食道園)에서열리라고

휘파람

▲전남순련(全南順天)은전남 동부(全南東部)중군중에 모든시설이 왜발권된모양일다더라서풍긔문란(風紀紊亂)도왜발권이되엇다고한다▲해만지면 어둥칭칭한곳은 물론이어니와 아주번칩하게 남의사랑에서나 편사에서나 목수공장에서나 엇던회사마당에서나 가진주태를하다가나중에는이웃고을까지가서!▲이가튼불량청년남녀가 순텬에서도 하도만하서주대를할수업는데 더욱이 광양군에잇는 불량청년까지와서 모녀결과는 그녀교사의직분까지여먹고 그놈까지 국경밧그로쫏치가게하엿다지▲그래도무슨흉위가 남엇든지 여권히 서양거문고만밧낫들고나단다고

貸付)토디가옥매매중개(土地家屋賣買仲介)와 채권매입급위탁(債權買入及委託)등간판을부처고 시내모모신문에사무원(事務員)외무원(外務員)모집광고를내여 [illegible] 보증금으로리정호(李鼎浩)김영숙(金榮淑)외십수인에게대하야 백원내지삼백원의금전을 사취한사기취재(詐欺取財)사건의공판은일일에경성디방법원칠호법뎡에서심리를마치엇는데 검사는뎐보경에 대하야 이년징역을구형하고판결은 오는팔일에언도하리라더라

賣家 京城府[illegible] 大野

▲開業廣告▼
本人이今般朝鮮料理營業을開設하는同時에歌舞에熟達한藝妓를本屋에常住하옵고象하야會席外지準備하엿사오니江湖僉尊은愛顧하여주심을바랍니다
羅州大正町 錦一館 主 宋圭炫 白
藝妓 宋月仙、郭桃花、洪蓮香 徐錦蓮、裵蓮玉、趙彩蘭
酌婦 金錦花、李蓮花

本人은全州高沙町出生으로일즉十二歲부터全州劵番에서四個星霜동안歌舞를學習하다가不得已한事情에依하야羅里柳町松栢館에서數年間主人의따뜻한사랑과僉位의愛護하여주심을厚崇하난가운대偶然히羅州大正町錦樂館으로轉居하온바主人의사랑하여주심은勿論羅州僉尊의따뜻한同情을받은가운대잇사오니顧客僉位는더욱더옛만흔同情과將來外지愛護하여주심을바랍니다
羅州大正町 錦樂館 藝妓 朴洞庭月

▲開業廣告▼
本人이今般朝鮮料理營業을開設하옵고會席外지準備하엿사오며歌舞에熟練한藝妓도本屋에常住하오니江湖僉位는將來外지愛護하여주심을바라나이다
一九二五年八月 日
羅州大正町 錦樂館 主 文奇奉

證書紛失廣告
借用證書 額面 一金百圓也 日字 大正十四年二月 日
借用人 龍仁郡南四面風鳴里 李舜雨㊞
保證人 龍仁郡南四面風鳴里 李春榮㊞
右記와如한債權者無記名한證書를紛失하얏기無效로認定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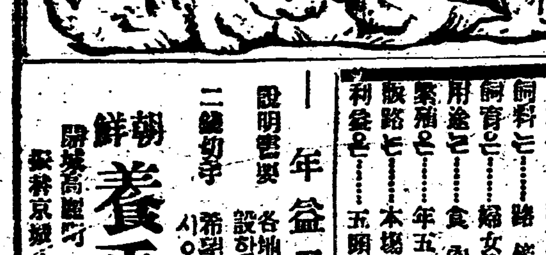
●陰萎性的不能 活復
完全한 生殖器還少器 ●프레사-
日本政府新案特許第八三六〇九號
●프레사-는數年苦心研究의結果로世界無比의大發明●完全한人工的男子生殖器의還少器이다●陰萎、早漏、遺精、不能者、婦人性的不感症者는卽時可能●本器는[illegible]
◆上等프레사-一具四圓五十錢
●特製프레사-一具五圓五十錢(男子不能者의專用具)
●男子不能女子不快感者倂用[illegible]
◆프레사-說明書無代進呈
發賣 東京赤坂丹後町 東興堂化學工業社 特約店募集(振替東京三三三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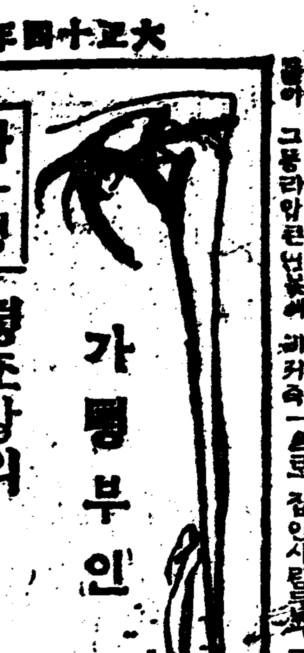
最有利한副業 兎를飼하시오
資本은……種兎代와[illegible] 飼料는……路傍의雜草 飼育은……婦女兒童도能함 用途는……食肉과毛皮 繁殖은……年五子以上 販路는……本場서永久買入 利益은……五頭母兎로부터 一年益五百圓
說明書 各地에支分場設함
二錢切手 希望者는申込하시오
朝鮮養兎場 開城高麗町一七五番地 振替京城六貳參九番

入院隨意
平壤府鷄里(문우골) 內科 外科 産婦人科 皮膚科 花柳科
東明醫院
愛知醫學士 金箕東
電話 一二六番

最新式엑쓰光線設置
百濟病院
釜山府草梁 電話 一六二七番 二〇六番 二七一番
◇入院隨意
釜山鎭分院 大新洞分院

大昌號 京城南大門通一丁目
歐米式製造 白쓰구 油背皮 短靴參圓





가평부인

가평◇평론

뎡조상의 남녀평등론

三村人

◇재판소에나타나는현상을 보면 리혼재판이 해마다불어간다합니다 이엇지한 비극이며 상서롭지못한 현상이라할가요 그러나 리혼을하는이인들 그솜아린일을 하고십허서 하는이야 잇겟슴닛가 여긔에는 반드시여러가지의 원인과 써닭이잇슬것은뎡한리치올시다

◇종래의 그릇된 강제결혼(强制結婚)매매결혼(賣買結婚) 사긔결혼(詐欺結婚) 등에의하야 마츰내 리혼의비극을 면치못하는이도 잇슬것이오 혹은재산관계로 인하야 갈리는 부부도 잇슬것이오혹은주의주장(主義主張)이나성격(性格)상 불합으로 리별하는 남녀도잇슬것이외다 그러나필자는 이상의 모든원인과 동긔보다도 또한가지 중대한 원인이 잇는줄로 생각합니다

◇그것은뎡조관계 (貞操關係)올시다 더욱히 필자가이에말하랴 하는것은 뎡조에와지 남녀를차별한데서 젼말비극이 무수히발생된다는 말이올시다 녯말로말하면『남녀칠세에 자리를가려하지안는다』하야노코 실상은 어구속을밧는이는 녀자뿐이외다 사내는 엄마를두고 살지라도 관계치안코 녀자는남의사내를 처다만보아도 심하면 내어쫏는일이잇지아니하얏슴닛가 소위 칠거지악의 음통(淫通)도 오족 사내가녀자에게 하여왓슴원니오 녀자는 시앗을줌오로보면서도 울거소리만 하면 삼태미를타지어니하얏슴닛가

◇이러하고야 엇더케 부부간의 평화롭지할수가 잇슴닛가 새가뎡을 건설하라하면 먼저 녀자나남자나 다가티뎡조를 직히어야할것이외다그리하야 부부간에 서로서로상대자로하야금 그릇됨이 업도록 로력하여야할것이외다 이와가티 다각각자각(自覺)을 가지고 뎡조의평등을 직히고 일부일부(一夫一婦)의법을버서나지 안키에 힘쓴다하면 리혼의비극도 차차 감해질것이오가뎡의 평화도 스사로엇게 될것이외다

질투심이만흔 서반아녀자

여러민족의혜로되긔질과생활(七)
서양녀자의긔질과생활

서반아나라는 다세의고긔가 복잡하야 하천(河川)에 배길이불편한나라는 다시볼수 업다합니다 따옥히 그러하가 일반뎍으로

◇간조하야 비가오는일이드믈니다 이러케간조한 영에는 간조한종족이 생활하게되는것은 자연한리치라 하겟슴니다 서반아사람은 본래머리진 디중해(地中海)인종과『아프리카』의흑인과의 혼혈아(混血兒)인 『발바리』노족하는 민족이 엇든것이그뒤에 『켈트』족의 침입을당하게된것이라 합니다 『발바리』족은 소극주의를 숭상하야

◇질소하며 성미가간조단박하야 다른사람과 교제하는것도시려하고 고동을 조화하는종족이엇스나 『켈트』족은 그반대로 교제를조화하며 우정(友情)이만코새것을 사랑하야

◇엇더한쌍 에가서든지 유목(遊牧)을 일삼으며 밥잘하고민첩한 민족이엇슴니다 그런데 이두민족의성질이서로 조화됨을따라 『서반아』사람은 못뭇하야다른사람에게굴복치안코뎌항하는용긔가 만흔민족이 되엇슴니다 그뒤에도『고트』족과『켈트』족의피를바더 성격에변화가 나타나 일찍정혼하는 조혼풍속이생기게되엿다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서반아녀자의 긔질은 엇더하냐하면 그들은 안에서

◇불가티타오르는열정 을잘진압하고 비록원한하는 일이잇슬지라도 그것을속에다 잘숨겨두고 외면에발표치 안는다함니다 그러고그들의 감정이예민하지마는『이태리』녀자와 마찬가지로 잔인성이잇서 집안에기르는 짐생에게든지 또는다른사람에게 대하야 매우참혹한일을만히한다 합니다 그리고서반아녀자들은 남편으로는 성미가

◇현상우진 사내를환영하게된다하며 그외에 그들은 몹시시긔하는 풍습이 잇서다른사람의 잘난것이나 또는훌륭한사업에 성공하는것을 몹시시긔한다합니다 그럼으로『또누아』부안는 서반아사람을평하되『서반아사람의 질투는 울분과명예에 관계되는것을 만히포함하고 련애에관한것은적다』 그들은 자기보담

◇나혼사람 을 참아보지못하며 자긔보다 잘난사람을보면 그사람의 의긔를저상케한다」고하엿슴니다

서반아녀자의 외형으로 말하면 그들은 큼직하고검는눈에긴눈섭이 보기조케낫스며 특별히 머리털이검고 살빗이희며 몸작이경첩하야 우리동양사람의 눈에는『파리』의미인이나『로서아』의미인보다도 더아름답게보입니다

대화진찰소의 진찰시간변경

오후두시부터네시까지

부녀와아동의 건강을 위하야세운시내어사동태화진찰소(泰和診察所)에서는심한더위로말미암아 칠월팔월두달동안은오전에병을 보기로하엿더니 다시서늘한 가을이도라옴을 따라전과가티 오후부터네시까지 녀의류영준(劉英俊)씨가간호원서로신복(申信福)씨와간호부한사람을 다리고 친절히 환자를치료하게 되엿다더라

리익이만흔 서리병아리 쌜때는지금 (六)

◇양계의장래

서리병아리의 리익에 대하야는 이미다섯번에 난호아 긔록하엿거니와 이왕에양계에대한 이야기를 하는길인즉 조선과양계업의장래에 대한이야기를 간단이 적는것도 양계하라는이의 참고가될것이다 현재조선에는 륙빽만마리의 닭이잇는데 농가의한가호평균으로보면 룸과매호에두머리밧게 아니됨으로 일본의 매호평균 아홉머리에 비하야볼때에 아즉도엄마든지 발면될여디가잇슴을 충분히 짐작할수가잇슬것이다

◇팔기는어떠케

아모리 조선의양계업이 전도가유망하다 할지라도 독자중에는닭과 알을엇더케팔어야 할가만약팔리지안는다 하면아모리닭의리익이만타할지라도 도로혀 귀찬하게판매에곤란할것이 우선가하는이도업지아니할것이다 그러나 이러한걱정은 너무나쓸데업는걱정이다 현재일본에는농가매호에아홉머리가량위만하지만은 그래도부족하야 매년중국으로부터 원팔칠만 몹바치이전만원어치의계란을수입하는중이라한다 그러니라조선안에서도매년계란 수요는 늘어갈뿐임으로 양계조합(養鷄組合)가생긴곳에서는 일뎡한품질과 일뎡한가격으로 판매하게되면 오히려계란이부족하야 팔지못하는 일이잇슬지언정 팔지못할염려는업슬것이다

◇주의할몇가지

이와가티 유리한양계업은 남자아니라 부녀라도 하루몃시간을 리용하야심심소일로도 넉넉히할수가잇는 일이다 그러나부업으로던지 전업으로던지 양계를하라는이에게는 다음에긔록하는몃가지의주의가가장필요한것을말하야두고위선그치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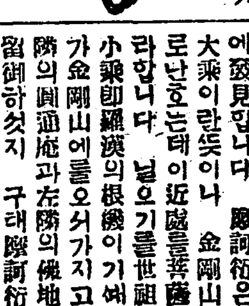
첫재、알잘낫는종류를가릴것(레호、미놀가등)

둘재、치운부터웃다지한결가티추욱더으로하고청결하야병이업도록할것

셋재、먹이는때돈을회게드리고파는데민첩할것

넷재、닭집은외면(집순)의칠입을막도록든든히할것

◇부긔] 독자의 편의를 위하야 알잘낫는닭을 소개하라한다 여긔사진에 뵈이는닭은 미국에서직접수입한력-만계(米)의백색『레혼』인데 조선에는 처음온것으로 현재부내 효자동오십번디화뎐(和田)이라는일본인이기르는것인데 명년봄부터는 실비로씨종을 분양하리라한다 —(完)—



음악가르치는학교가업슴닛가

【문】 저는 금년봄에 ○○녀자고등보통학교를졸업하엿는데 장래에유명한음악가가되기를 원함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음악을공부할 상당한학교가업는듯합니다 그러면 서양이나 일본가튼데로 공부를 가랴하나 저는집안이본래 부터 넉넉지못한까닭에 그도할수업습니다 또는 사정이이럼하다고 그대로그만두는 일은 대단 섭섭한일입니다 멀리서양이나 일본을가지안코도 우리조선에서 공부할수는 업겟슴니가 만일잇다하면 그학교와또는 방법을 가르처주심을 바람니다(필운동한녀학생)

【답】 장래에 유명한 음악가가 되시겟다고요 참으로 꼬마운 말슴이올시다 아족 예술이발달치못한 간조무미한 조선에서더구나 녀자음악가 라고는 안경쓰고도 차저보기드문 우리나라에서 그러케 또거운정성을 가지신줄감사히 생각함니다 그러나 음악이란실로 어려운것이올시다 먼저는자긔가 음악의 취미를가저야하겟고 다음으로는 거긔대한 재산이잇서야 하겟고그리고 또어느정도만큼은 경제의여유가 잇서야 될듯합니다 그런 당선의서도 여러가지로 만히고려된것인줄알고나무는밤이먼지 성공을 기필하고하는이상 모든방면으로 자긔에게 가능성이 잇는가 업는가를부엇보다도 가장 먼저생각하실필요가 잇슴니다 조선에는리화녀자전문학교에 음악과가 잇고 근화녀학교에 음악과가 잇슴니다 리화학교 음악과는 명년봄에 그학교서험에 응하야 입학하실수잇고 근화녀학교에는 자유로 자긔정도를 따러 준비할수 잇슴니다 우간 한번근화녀학교로 가서 당임선생과 의론하여보십시오

學藝

金剛禮讚 (三五)

白雲香徒

摩訶衍

◇萬瀑洞을나서면물을밟하地勢가東으로轉하면서 문득平敞한도국을일우엇습니다 全金剛의心臟이라할摩訶衍이여긔압니다 衆香城 法起峰 白雲臺뒤에서는 拘衛하고 法起峰 穴望峰등이 右에는獅峰、獅子、波輪과左에는七星、釋迦等의秀峰이擁立하야高濶雄麗한一大天府를지은속에 숩이깁고 시내가맑고 蒼壁에는騰蹦 奇趣를더하고 翠樹에는烟雲이變幻을마음셋하고 다시梨花色으로珍禽은音으로이사이를點綴하니 여긔야말로仙境이아니면佛國이지 도저히塵凡의사라고는할수업습니다

◇荀는行樹를으로太古的空氣를마시면서들어가면 얼마아니하야摩訶衍의庭子를窖宮石臺上에發見합니다 摩訶衍은梵語에大乘이란뜻이나 金剛山을四區로난호는데이近處를菩薩道場이라합니다 넘오기를世祖大王은小乘即羅漢의根據이기때문에그가金剛山에를오시가지고도 右陟의圓通庵과左陟의佛地庵에만留御하셧지 구태摩訶衍에는드시지못하얏다고傳합니다 만시當時무슨便宜를조차摩訶衍에는新祝을베풀지아니하신것인데僧徒間의시샘통에이런한이약이가생긴듯하며 鄭守夢의記를據하건대『庭畔、有小瑠璃地、即光廟臨幸時 所立處 擁遺跡而起敬』이라하얏스니 摩訶衍에도이만한緣分을맷지신것이분명합니다 初創은義湘이오現在의堂宇는純祖三十一年月松禪師의重建이라하는데 結構가雄宏壯합니다 境域이幽勝하야오래서부터禪房으로서워오는곳입니다

◇南秋江의記에『前案有尖無竭石像、諺乃此山之正中、而曇無竭、乃山之主佛、僧俗過此者、莫不頓手拜過』라한것도시방으로업서젓습니다 申樂全의記에『寂之南、即穴望峰、峰旁有一石、儼若坐僧、曰石曇無竭、龍僧鬪翁、眷佐此庵、常恭拜、至今僧人、不敢踐其地、石迹爲嵩、有草生之、僧譽以爲明堂草』란것도시방은모르게되엇습니다 (南記에는이일을指茶에게붓들어매고일흠도指...)

妨山」또엇던이는바로흙히써서『이것은如來의 大法眼藏이니法起菩薩이時히衆生을爲하야이一隻法寶를別具하야노코光明을常放하야길히有緣者로하야곰와서妙覺을證하게하신것이라』는말도하얏습니다(金石菱)여긔서보면穴望峰의法起峰머리에西向한法起岩이딴을들고說法하심과그압헤常啼岩이고개숙이고受益하는신용이다天然합니다 (寫眞은摩訶衍)

◇菴에서내다보면바로압흐로니마에구멍이나서그리로하늘이보이는 石峰이보이니 이것이前에는國望峰 시방은穴望峰이라하는것입니다 요새말하기를구멍으로바라본다고大望이라한다하나 그런것이아니라실상은穴望의穴은顯、望은音으로讀하야合하면東讀에國望이나한가지로『구멍』이되는것이니 저望軍巖가『봉은러』로되올것임과갓습니다 이窮暇한구멍이크게遊人의注意를끌어서여러가지말거리가되니엇던이는말하기를 天地가劫灰될적에라도造化가金剛山만은쇠집어내실터인데그때손잡이할곡지로이구멍을낸것이라하고엇던이는慾氣를내어『萬二千峰本同根、拔一可以叢垂琴、我欲借得天吳手、鈎貫峰穴一呼邪、移置江南曠野間、丟家無過百里險、幅中棕履榮髮杖、一月一往管烟證』을하겟다고하얏스며(許

農工結合論 (五)

金鳳集

現下經濟大局上으로본우리의救急策

佛蘭西는其人口의三分一以上이農業者인바佛蘭西各地의小農民들이能히其土地의所有를繼續함은全혀農村工業의餘慶이라한다 佛國의農村工業이第一重要한地方은『三一』은地方인바此市의 絹布織業工場에雇傭되는農民의數는 數百萬人이며 또『안토니』地方에는 조고만한河川의 水力을利用하야 動力을일으켜村民共有의工業을經營하는데 이와가티農村工業이잇는地方의人民의生活狀態는다른農村工業이업는地方의農民과는참으로雲泥의大差가잇다합니다 ●『에밀』地方에는...의製造業이極히繁盛하야一面製皮에서나는찌기는肥料에使用하야 크게殷富한農村이만히잇습니다 獨逸에는山間土地로 土地가그리肥沃치못하야農產物은馬鈴薯가第一만은데產業이그리發達되지못하야 一般住民의經濟生活이 大困難함으로 그地方의有志者들이相議하야農產物을原料로하는工場을一般住民의組合制로建設하얏습니다 그工場은馬鈴薯를原料로하야『알콜』을製造하는것인데 그工場四圍에業隊를建設하야馬鈴薯의찌기(粕)로 蓄豚하며 또...는炭酸瓦斯를管으로田地에引導하야肥料로使用하야高價인암흘은結局副產物로製造하게되여莫大한利益을어더그地方의經濟의充實이以前과는 天壤의差異가잇게되엿다함니다 위러한例가獨逸에한두곳이아니고더만히잇습니다

以上의數例를보면農村에工業을加味하야얼마나한利益과效果가잇는지는넉넉히알것입니다 現在우리朝鮮사람全人口의七割卽千四百萬人은農業에從事하며其農產物이나 或은各其土地의天然物로아조容易하게工業原料에使用할수잇는것을重要한것만몃가지表示하면農產物로는

油脂原料	棉子、西瓜仁、荏子、胡麻、蓖麻等
製革原料	牛皮、毛布等
製糖原料	甜菜等
釀造原料	米、大豆、大麥等
紡織原料	棉花、絹絲、毛綿、麻等
製紙原料	材木楮等
單寧原料	五倍子、楓等
細工業原料	竹、漆木等

그리고直接農產物은아니나 農村에서容易하게取得使用할수잇는것을例示하면

製鹽原料	海水鹽石等
製油原料	各種魚類及鯨等
海產品原料	海苔、海衣等
窯業原料	各種粘土及珪土等
硝子原料	硅石等
化學工業原料	農產物及天然物
機械製作原料	各種木材及金屬等

以上몃가지는重要한것몃가지例에不過하고以外에도各地方에서容易히利用될原料가만습니다 現在우리의社會의各農村에서는 農產物을그대로賣却하야高價의加工品을사들여使用하며或은利用할만한原料를放棄하는터인즉이以上列示한몃가지만이라도잘加工利用을한다하면우리의經濟界가얼마나活氣를띄게될지넉넉히豫想할것입니다 綿花를만히生產하는地方에서는紡績工場或은織工場을設立할것이외다 大小와經營組織이라던지는其地方의經濟狀態나人文風俗과人口의疎密等을따라決定할것이외다 그리하야其地方一般農業者로하야금直接間接으로그工場과密接한關係를가지게하야 一般農業者로하야금一面生產에參加케하는同時에그네들로하야금生產品의消費者가되게하야처음에는該一地方의自作自給을目標로하야出發하야漸次發展擴大케하여야할것입니다

이와가티하면大資本과大企業의壓迫을그리甚하게밧지안을뿐아니라技術 優劣의影響도比較的적게밧을것이외다 그뿐아니라 大企業制度의缺點인工場問題 衛生問題와가든問題는생기지안을것이외다 이와가티各地方의天然이나 或은現在의經濟나敎育等各般事情에適合한製造工場을設置할것이외다 製油製革 釀造 紡績 製紙 染料 窯業 硝子 化學工業等이 우리經濟生活의衰枯消果에直接關係를가지지안은것이어느것이잇슴리오 이러한日常生活에直接으로不可缺할製品을製造하는工場을設立하야在來의製造方法을一部만改良하야그대로採用한다던지或은新規의方法을採用한다던지其地方의事情이나或은其他條件에依하야決定할것이외다 처음은自作自給을目標로하야시작하야漸次擴張할것이외다 이리하면地方의經濟界의大勢에도움이만흘것이외다 그뿐아니라敎育이普及되지못한 우리社會에는農學、農業과科學의應用이엇더한것인가를알게할수잇스며科學과敎育兩方面에도大한效果가잇슬것이외다

이와가티農村一部를王業化한다면 먼저一般識者有力者及靑年의奮發이업스면안될것이임니다 오늘날一般識者나靑年들이目下우리의現狀에失望하야將來를悲觀하는傾向이만흔듯합니다 과연우리의現狀을보고누구나失望치안흘수업습니다 그러나 나는조금도우리의將來를悲觀치안습니다

그때가어제나올가요

銀泉

이세상의制度는
罪업는人間을 가둬노은監獄이외다
이것을둘러싼鐵壁이 法律이외다
그러고 마음은
因襲이란쇠사슬에
얽거매엿습니다

애닯음사 가련한人間들은
道德의敗殿 宗敎의權威로
三重의이拘束을
버서나올 어렵조차못하고
마음은獄속에서발버둥칠뿐입니다

오!동무여
우리들의마음속에붓는불길이
소낙비내리듯이 쏟비가쏘다저
地球덩이우에暴風雨를내리사
이것들을모두다불살라버리고
사람의良心만이
이세상에君臨할그때가
미듬과사랑만이
事物할그때가
오!동무여!언제나올가요?

밝은달

泰東

님이여!
나의머리위에잇는달은
적고적고저-편으로다라납니다
저-편에잇든검은구름은
작고작고이편으로달려옵니다

님이여!
이편에밝은달은
곱기야곱기야
부듸치고마랏슴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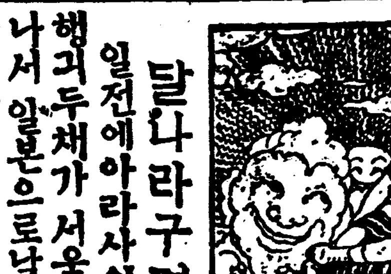
님이여!
밝은달은그만에저모옵게
검은구름에무치엿슴니다
면동시우치를찻처거와가티
온-우주는암흑으로변하엿슴니다

님이여!
나는울엇슴니다
그달은나를버리고
『암흑』의가운데로들어갓습니다
나는에커로워울엇슴니다

님이여!
내가그리워하든그달은
검은구름이다한뒤에
방긋이웃고다시나의머리위에
더욱명랑한빗으로나타낫습니다

一九二五、八、三一밤

달나라구경



일전에아라사의 비행긔두채가 서울을지나서 일본으로날러갓습니다、대길이는 년전안창남씨의 비행을 구경한후로 오늘날재지 비행긔만 보면 그조고만가슴을 부듸어 『나도한번 비행가가 되얏스면…』하고 생각을 아니 하는때가업섯습니다 더욱히 어제가아버지의말슴에 『서면』이라는 나라와『아라사』라는 나라를『문전』이란 박사는 비행긔를타고 북쪽의어름나라를 탐험하려갓다는 이야기를 들은후로는 『나도훌륭한 비행가가 되야 한번 달구경을갓스면』하엿슴니다 어제밤의 일이올시다 대길이는 꽤먹을 비행가가되야 수만명구경군의 깃버 뛰는중에 달나라구경을갓슴니다 그리하야 달나라에 잇는계수나무와 고흔 가지하나를 썩거가지고 나무의 도라와 부모님께드렷습니다 여러분 대길이는 얼마나 깃버하엿슬가요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아니라 꿈이야기올시다

新刊紹介

◇副業世界 八月號、一冊兩得의養鷄業、秋蠶飼育法에對하야、果樹의病虫害와防除法等 農家副業에對한記事多數、發行所京城府黃金町二丁目三十五番地副業世界社 定價二十錢

小說 웃고십건우서라! [30]

三周相作

봉선이의 봉편살림은 대강이러한경로로 시작되엇섯다 그러나날이갈스록 살림이 괴로웁다는것보다도 잠시한때 마음이편한날이업서 살이나릴 디경이다 다섯채집이 사는집이라 그러지안허도 말이만흠러인데 봉선이가 드러안진뒤로는 어쩌하야그런든지간에 김주사와 산월이의 사이가 점점갓가워감을따라 영옥이와 날마다 말다툼이요 불편한일에도 샘들이다 나중에는 은연중에 영옥이와 뭉치이는봉선이편이되고 김주사와 산월이 모녀가 부동이되여서 영업을두차자하라 고들벌석이다 그러나영준이는 료리장사야되든말든자긔가경영하는일이 밧부다고 떠도라다님은이요 조금도 간섭을 아니하얏다 그래그런지 커레고련지 남이새하면 김주사와산월이는 돈은하고 송구스럽게현집안을 뒤잡어업고다닌다 그러나 영옥이와 ...

『그러고보면 무슨분편이든지 조고마한것한아만잇스면 여긔 나종에 념려가된다하드라도 최상어 자긔대에만 갓다오면곳애 교섭이시작된것이다 ...

그리는동안에 봉선이에게는 또한가지 흥질일이생겻다 봉선이가어린은지 두어달동안뒤에 타서 술을차려가지고 김주사와 엇던날남편이 일즉 들어온때에 산월이 돌어오더니 영업이말아니가되엇다는이약이와 자금만원하나만 떠도렷스면 명장하게 확장을해가지고 지금까지손해본것을 회복할수잇고 그게다ㅣ못되면 오천원하나만이라도 물려주면 반년안으로 변리까지 부처서 해출터인데 지금여긔서 물리자면 최영준이네의가 생각만도리서면 당장에 될것이라고는련노코나서 그만돈에 영문서꺼지야 가지고다닐필요가 업스나 최영준이의수형한장만 하야도될것이요 그러치안흐면 두분이의문해서 한분이써노코 한분이 리서를하면 더욱조켓다고봉선이를 한목가는 재산가커렴조허세운다 이러하야 조금식쇠려내자는수작이다

『암그러라마다 서울대(봉선이를 서울댁이라고불은다)이서 돌오기만하면 그만거야 되다마다』하며 산월이도엽해서 부축인다

『그러나 지금여긔서 별안간 엇더하나 조선으로가면 엇더케 될까 올일년은이대로 그럭저럭 지내보지』 영준이는 난처한듯이 병병히

◇우미관독자의 우대권은란외에◇

社告

一、支局의名稱 群山支局
一、支局의位置 群山府大井洞一五 電話七四六番
一、支局長의氏名 支局長 李鍾呂

右와如히群山支局에關한一切를支局長에게委任하얏사오니貴讀諸位는新聞請求及廣告申託等一切를直接交涉하시옵소서

朝鮮日報社白

今般本支局에서左와如히局員을任用하얏사오니愛讀諸位는如此照亮하시옵소서
總務兼記者 金永輝
記者 金鎭
顧問 趙容寬
顧問 方漢廻
朝鮮日報群山支局白

今般本支局에서左와如히局員을任用하얏사오니愛讀諸位는如此照亮하시옵소서
記者 姜徹
記者 金光海
朝鮮日報蔚山支局白

今般本支局에서左와如히局員을任用하얏사오니愛讀諸位는如此照亮하시옵소서
記者 朴連陽
朝鮮日報价川支局白

社告

一、支局의名稱 鎭川支局
一、支局의位置 鎭川郡邑內
一、支局長의氏名 支局長 南章祐

右와如히支局長을任命하얏사오니愛讀諸位는照亮하시옵소서

朝鮮日報社白

今般本社河東支局位置를 河東郡邑內 下馬町三七四 番地로移轉하얏사오니愛讀諸位는如此照亮하시압

朝鮮日報社白

今般本支局에서左와如히局員을任用하얏사오니愛讀諸位는如此照亮하시옵소서
總務兼記者 李世馥
記者 朴鐘英
朝鮮日報鎭川支局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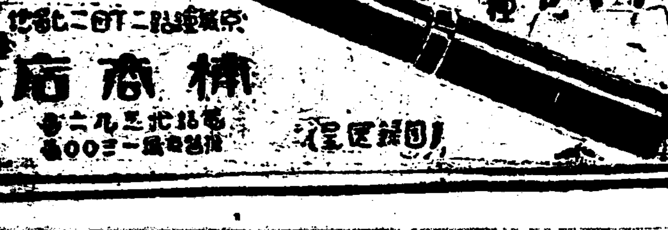
今般本支局에서左와如히局員을任用하얏사오니愛讀諸位는如此照亮하시옵소서
記者(若木駐在) 申海均
記者(雲峴駐在) 朴喜昌
朝鮮日報倭館支局白

今般本支局記者金潑煥君은事情에依하야辭任하얏사오니愛讀諸位는如此照亮하시옵소서
朝鮮日報靈光支局白

八月二十九日부터特別名畫公開
米國폭스會社 實寫폭스뉴스 全一卷
喜劇 二人의짝이 全二卷
米國폭스會社 덕앤가먼氏主演 人情劇 脫營者 全六卷
米國바스會社特作 文明諷刺 라지오將軍 全六卷
독일우파社 冒險大活劇 前代未聞
米國우니버샐社超特作 英國文豪디킨스氏原作 藝術映畫 겨울리오면 全十二卷
大活劇 震天動地 全七卷
驚異的大名畫 단테地獄篇 全五卷
日活特約 優美館 電光三九五番

九月一日부터五日間 米國유니버샐社代表的大作品 世界的快漢 大飛躍 冒險女優 르랜드 助演 世界一週 十八日間 全十二編二十四卷中 第一回 第一編 第二編 第三編 第四編 第五編 第六編
米國메도로社特作品 키통영예三代記
豫告 ◇大豫告◇
不日封切 高麗映畫製作所 朝鮮初有의現代的悲哀曲 大悲哀曲 쌍옥루 前後篇全十卷
松竹特約 團成社 電光九五九番

◇八月廿九日土曜부터特別大興行
◇스타-필님會社提供 愛國心과犧牲、보시라!精神의嚴然한
大로맨스、革命과戰亂! 메리카-夫人主演
名畫 亞米利加의魂 全十卷
◇스타-필님社特作品 名優차-레스레이氏主演 社會活劇 箱子에든아들 全五卷
◇米國파라마운트社 喜劇 천처의분쟁 全二卷
◇스타-필님社提供 名畫 暗夜의愚者 全八卷
◇파라마운트社 名優도-마스미항氏主演 名畫 子煩惱 全八卷
京城仁寺洞 朝鮮劇場 電光二〇五番



萬年筆
パイロット
セーラー
メーブル
京城鍾路二丁目
桂商店

青年問題大講演

安東靑年聯盟主催로 大盛況을呈하얏다고

慶北安東郡安東靑年聯盟에서는發會式과臨時大會를開하엿다함은別項報道와如하거니와同聯盟에서는去三十日下午八時에同會館에서靑年問題講演會를하엿는데金南洙氏司會下에演士李鍾鎬君의「無産靑年의使命」李雲渺君은「靑年運動의意義」柳淵述君은「靑年聯盟의必要」李會昇君은「運動上으로본昨今의安東」이란題로各各長時間의雄辯을吐하야一般聽衆에게만흔늣김을주엇다더라(安東)

安東靑年聯盟 發會式

祝電祝辭遝至 萬歲三唱으로閉會

慶北安東郡에잇는各靑年團體의發起로安西靑年聯盟이組織되엿다함은旣報한바어니와同聯盟에서는創立의첫소리로去月三十日午後四時에當地靑年會館에서發會式을擧行하엿다는바當日은더욱이날이감작이비가나림도不拘하고

八個細胞 團體會員多數

가모히여滿場의盛況을이루엇고定期이되자同聯盟執行委員金南洙氏의簡單한式辭가잇슨後豐山小作人會李準泰火星會金元鎬兩氏의祝辭와遠近各同志團體에서온祝電祝辭四十餘通을朗讀한後諸氏의意味깁흔感想談이잇슨後會員李會昇金膺漢劉淮柳淵建外安東靑年聯盟萬歲三唱으로同八時頃에盛況裡에閉會하엿다더라(安東)

北栗面에 남우리少年會 새로創立

黃海少年聯盟에加入

黃海道載寧郡北栗面에는數千의少年이잇스나外지機關이업슴을遺憾으로생각하던바이에李有光李明源兩氏의發起로「남우리」少年會創立總會를지난三十一日同面石海里金孝宗氏家에서열엇는데出席한少年이三十餘名에達하엿스며決議事項과被選된任員은아래와갓다더라

◇決議事項

一、黃海道少年聯盟에加入할것

一、每月月例會를開할것

一、남우리宣傳하야會員을募集할것

◇執行委員

敎育部千賢廣 金智鎬 胡允龍 遊藝部林成均 尹炳勳 李演奎 宣傳部李濟源 郭永浩 曾東赫 指導者李有鎬 李明源 金孝宗(沙里院)

敎育會總會 新興郡廳

에서組織한新興敎育會第一回總會를八月三十日午前十一時부터當地公立普通學校內에서開催하엿는데會長金?浩氏司會로會員中李憲氏의小學校校員들은兒童들에게對하야何를勿論하고敬語를使用하자그리하여야兒童의品性과人格을向上시킬수잇다는提議와金泰?氏의小學校校員은飮酒하지말나先生이飮酒하는것을보면兒童들이그를模範하기쉽다는等의提議가잇슨後午後에時에閉會하엿다는바決議事項은如左하다더라

一、會員募集의件

一、巡廻學事視察의件 (咸興)

少年會創立 退潮에서

咸南退潮에散在한少年諸君은普通敎育의必要와互相親睦을目的으로去二十八日午後二時에少年會를組織하엿는데會員은三十餘名에達하엿고任員은如左하더라

會長宋正鎬 副會長金世煥 總務崔鍾律 財務?錫 書記金鍾律 幹事李金德全?勳 (退潮)

남우리 靑年同盟發起

黃海道載寧郡北栗面에는오직하나인「남우리」靑年會가잇섯스나有耶無耶中에잇슴으로이에金孝宗李?錫李明源?德煥諸氏의發起로남우리靑年同盟을組織하기로發起하엿는데參加資格은아래와갓다더라

一、朝鮮人으로三十以下十八歲以上의者로官公吏가안인者

一、發起人及旣參入者二人以上의保證人을要함 (沙里院)

中國興京서 水害救濟講演

다물靑年黨의主催로在內同胞水災講演會를本月十六日下午一時에柳河縣三源浦大花斜禮拜堂에서開催하얏는데聽衆은立錐의餘地가업시滿場의盛況을일우고同三時에散會하엿다더라(興京)

去益暴露되는 竹山面種租騙取

다시面民大會를開催한다고

全北金堤郡竹山面民들은同面面長과書記及區長等이今春窮民에게種租를騙取하엿다고하야徹底히調査하야懲治하여달라고同郡廳과消防組까지交涉委員李殷涉氏外三人의連署로陳情書를提出하엿던바懲治하기는姑捨하고도리혀

不正非行

面書記인李樂議는面長으로任命하야同郡의貧寒한行政을一般面民들은非難하는同時今後에行할先後策을方今講究中이라함은이미報道한바어니와그後面長을드르면지난二十五日에宗新里區長崔炳燮이가當時分配된窮民들에게무슨음을펀것이잇스니다시調査委員들은二十八日本同交涉委員들은보여달라고도라다님으로同面에가서그帳簿를보여달라고하엿든바마침그때面長이업서면보여줄수가업다고함으로一般은더욱

憤慨莫甚

하야帳簿보이기를싀리어함은想必裡面에숨은許欺가잇다고同面民側에서는不日間다시面民大會를開催하고相當한對策을講究하야徹底히對抗하리라더라(金堤)

曙光이비초인 錦山靑年學館

義捐金遝至

全北錦山郡內에在한錦山靑年會에서는去年九月부터學館을設置하고入學難의兒童百五十餘名을收容하야有志靑年諸氏의無報酬努力으로維支하여오던바地方有志靑年鄭炳旿朴贊永等諸氏의熱誠과地方人士의同情으로去一日부터有給敎員一人을雇聘하얏다는데金顯世氏外一人은不得已한事情으로學館을爲하야盡力하겟다하며一般은稱頌不已하는同時에將來를樂觀하다하며每月義捐金으로許諾하신人士의氏名及金額은如左하다더라

鄭炳旋十圓 朴贊永 無名氏

馬山崇武團總會 慶南

馬山崇武團에서는去月三十一日下午八時三十分에同館內에서臨時總會를開하고黃泰益氏의司會下에第四回臨時總會를報告와決議하고左의數件을討議決議한後同十二時二十分頃에閉會하엿다더라

一、今秋脚戲大會開催에關한件

一、月捐金에關한件

一、同情金未納者處置에關한件 (馬山)

思想團體 前衛同盟

木浦에서創立

全南木浦에서는從來思想團體가업서民衆運動者들은遺憾으로생각하든바余泳植、裵致文、徐炳寅、朴在鳳、李吉山諸氏의發起로八月三十日上午十時市內柳町徐炳寅氏自宅에서前衛同盟創立會를開하고裵致文君의司會로規約을通過한外에는一切不成文으로하고事業範圍는靑年、思想、勞農、女性、衡平等運動에對하야硏究努力하기로決議하엿다더라(木浦)

水害救濟 音樂演奏盛況

江陵音樂硏究會主催

八月二十四日江陵音樂硏究會主催인水害救濟音樂演奏大會는時代日報每日各社支局及基督敎靑年會後援下에서江陵俱樂部會館에서開會하고兩日間大盛況을일우는바收入金과義捐金은如左하다더라

十圓 崔準集各五圓 無名氏 崔鉉琪 久保田 岡部 李元鐵 鄭斗漢 東亞日報支局 朝鮮日報支局 各二圓 金敎先 久原 高井 無名氏 李花香 各一圓(江陵)

金堤靑年委員會

全北金堤靑年會에서는去月三十日午後九時부터邑內同會館에서執行委員會를開催하고副委員長司會下에左記事項을決議하엿다더라(金堤)

一、夜學에關한件

가、女子勞働夜學生에게今後로는每月月謝金十錢式을徵收할일

나、開學은來九月一日

다、勞働夜學의責任者는敎養部委員으로

라、女子夜學의責任者는敎養部委員으로

一、國際靑年데이紀念에關한件

가、講演會는本會館(天道敎堂)에開催하되演士는李寧吉?演準

一、臨時總會는來九月十三日午後一時부터本會館內에開催할것

朝鮮饑饉救濟會 救濟金品分配

金堤에서

朝鮮饑饉救濟會에서第三回救濟金을分配키爲하야同會執行委員辛日鎔氏가去月二十七日에來全하야各團體의金堤配當金三百九十圓을讓受하고同氏는扶安으로向하엿다함은旣報와如하거니와지난二十九日午後五時邑內朴淵氏家에서金堤靑年會 基督靑年會 東亞日報金堤支局 朝鮮日報金堤支局四個團體代表가會同하야前記配當된三百九十圓으로大麥을買入하야全郡十七面中第一尤甚한九面에分配하게되엿다는데配當될面別은如左하다더라

面名	分配石數	分配月日	分配委員
進鳳	五	九月十日	趙判五
竹山	四	十日	張準錫
孔德	四	十日	朴淵
下離	四	十一日	朴淵
靑蝦	四	十一日	趙判五
金堤	三	十一日	崔淳喆
聖德	三	十一日	崔淳喆
月村	三	十一日	張準錫
鎭坎	二	十二日	朴淵

(金堤)

安城幼稚園 開園式盛況

京畿道安城邑內安城幼稚園開園式은豫定과가티지난一日午前十時부터西里禮拜堂에서開催하엿는데安城어린니界에初有한盛事임으로來賓도多數參席하엿스며天眞爛漫한어린니五十餘名의遊戲唱歌와五歲되는愈淑根孃의演說은一般의無限한感激을주엇더라(安城)

黃州長老敎會諸職에게

啄木鳥 投稿歡迎 十四字 五十行以內 住所氏名明記

◇敎會에對한不祥事가各地에서頻發되어各新聞紙의報道됨은君等도仔細히알것이다神聖한敎會를事端을일으키게하은자못疑訝를마지아니한다 今般黃州長老敎會에서禮拜堂을看護하는元益氏逐出事件에對하야敎人과一般의輿論에빗치여筆者로서默過할수업게되는同時에一言을附하야 오직뭉개의大義를쏫차사랑이니容恕이니하고며드는君等에게反省을要한다

◇이는逐出을當한元益氏는十餘年의긴歲月을두고直接間接으로多少의貢獻이잇것은事實일것이다 君等의逐出理由가敎會守直上勤勞와誠意가不足하다는것이라고 한달에十五圓이라는俸給으로써五六名食口가生活을保障하라고함에오작困難이엿겟는가 이腹에飢餓라生活의資料를補充하라니外自然히敎會의看監과誠意가減縮되엿슬것은明白할것이다

◇그러나一般敎人들의말을들을것가트면比較的誠心으로보앗다한다 이러한形便의잇슴을알고도注意한번아니시키고突然히逐出處分을하엿다하니君等으로써는못할일이아닌가陋氏는逐出을當하고보니四顧無親이라依支할곳조처업서方今道路에彷徨한다고한다

◇筆者는이러한말을드를때에普通人間으로서도못할不道德한일이라고 所謂信者로서如此히敗行하은過失이아니고무엇인가 君等어모히여서陋氏를逐出하기로可決한뒤에後繼者로는執事(會員의아들)의아들로定하고月給은十七圓을주기로作定하엿다고한다이런巧妙한處事가過然良心가온데서울어나왓는가 이로써미루워볼지라도君等의心理를알수잇는同時에現代耶蘇敎人의行事가이러하다는것을널리廣告할必要가잇다

◇補力업는陋氏를逐出하고爲만흔執事의아들로一圓을더주고使用하여야만天堂간다는理由가어데잇는가

◇君等아反省하라 여긔에覺悟가잇거든곳責任을지고勇退하라敎人은勿論社會의輿論이沸騰함을말하여둔다(甕做生)

西面에學友會創立

全南順天郡西面學生一同은去八月三十日에同面靑年會館에서學友會를創立하엿는데同日은雨天임도不拘하고學生四十餘名이會集하야臨時議長金尙烈氏司會下에規則을通過하고運動會討論會夜學會等各種討議로決定한後左와如히委員을選定하고午後七時頃에閉會하엿다더라

會長 金尙烈 副會長 金官石 總務 尹秀東 會計 金 書記 尹弼東 幹事 許容 東儀 梁丙容 金泰環 (順天)

中國興京에도 水救會組織

다물靑年黨發起로

다물靑年黨의主催로有志諸氏를網羅하야在內同胞水災救濟會를組織하얏는데各地方有志를聯絡하야全滿的으로範圍를擴張하기로하고卽席에서募集된小洋이一百圓에達하얏다하며執行委員及幹事의氏名은아래와가다더라

康在河 朴世昌 金濟氏 金振榮 金世也 吳顧俊 鄭在

抽籤에挾雜하고 當籤者가自白

面長은郡守에게미루고 郡守는亦是어름어름해

京畿道安城郡二竹面職員一同은同面竹山里飮食營業者等과共謀하고一等賞品인蓄音機를抽籤에挾雜하야巧妙히돌려내고其外에二三等도自己들의親近한人에게나눠주엇다하야一般의非難이藉藉하다함은旣報한바어니와이제그內容을드르면前記一等賞抽籤券은一週日內에한번도나오지안코巧妙히감추어둔後該抽籤終了期日에同面書記任昌淳이가同面竹山里飮食營業者禹在鼎과共謀하고

共謀하고

同里魚物商李山省內에는[illegible]販賣되고業者인禹在鼎이가當籤되엿다하야其後에該事件의主犯이라는同面長李濟昇과同面書記禹在鼎이가가지고저하야

一般에게 宣傳한것이라고

郡守洪鍾國氏를訪問하고前記郡守洪鍾國의指導에依하야者는前記郡守洪鍾國氏는該抽籤券에對하야무러보니一二三等의級이完全히보인다고하며어름어름하더라(安城)

本報讀者優待

曲馬團一行은到處에서盛業을하든바數日前부터黃海道載寧에와서盛況을呈하든中邑內에到着하야方今映寫中인데當地興行中에는特히本報愛讀者諸位에게限하야半額으로優待하기로하엿다하며더욱히本報愛讀者諸氏에게限하야本報支局에서發行한券이라야된다더라(載寧)

三湖體育機關

赤血運動團組織

咸南三湖有志三十餘名은當地에一定한運動團體가업슴을遺憾으로思하야지난二十八日公立普通學校敎室에모히여赤血團을組織하고左記各部를設置하기로하고任員을選定한後閉會하엿다

一、庶務部 一、靑年部 一、少年部

◇任員

庶務部金寅善朴鳳瑞 靑年部 安昌恒池允鎬 少年部金翼順 張京道 (退潮)

畜産品評會 金堤에서

來十月에開催

全北金堤郡에서는來十月二十二日부터同四日外지三日間全州、沃溝、益山、金堤四郡聯合畜産品評會를金堤에서開催한다더라(金堤)

基督靑年巡回傳道

安岳基督敎靑年會宣傳部員十餘人은安岳地方에巡回傳道를하기爲하야去三十一日에龍門面東倉浦로發程하엿다더라(安岳)

勤儉週間宣傳 慶南河東

河東에서는郡及面當局主催로지난陰八月十二日市日을利用하야郡守白南日慶南銀行河東支店長金孝錫有志李恩雨三氏의勤儉에對한演說이有하엿다더라(河東)

仁川海事出張所 船舶職員試驗

來十月十日부터

朝鮮總督府遞信局仁川海事出張所에서는來十月十日부터該所에서定期船舶職員試驗을執行한다는데願書提出期限은來九月二十八日까지이며添付書類는如左하더라

▲戶籍謄抄本▲身分證明、乘船證明▲手札形寫眞『單獨半身、脫帽』(仁川)

永川에幻燈會 慶州私立

南明學校에서는經費困難으로因하야困境에瀕하야오든中維持金을엇기爲하야同校代表가今般慶州古蹟映寫幻燈器를組織하야全鮮을巡回할計劃이라는데八月三十日第一步으로永川에서永陽靑年會와本報支局後援으로幻燈會를開催하얏다더라(永川)

癸발靑年總會

會館修理를決議

城津郡內幸町癸발靑年會에서는、年을一日가려幸町夜學校를經營하여오는中昨年에新築한그會館이日前大雨에多少毀損된곳도잇고每日新入하는夜學生을收容할책상걸상等의設置를爲하야去月卄四日夜八時부터該會館에서臨時總會를하엿는바夜學校創立初로부터오직혼자서會務와校務를專擔하든李思準君의病弱한몸을休養케하야달나는懇切한辭任問題가니러낫스나드듸어留任키로決定되고會館修理와机床費造의捐金은卽座에서四十餘圓의出捐이잇섯더라(城津)

安岳面의救濟金

安岳郡安岳面에서는今般道外道內水害救濟捐金을募集한바出捐氏名과金額은如左하더라

元禎海百圓 金備鼎百圓 金延炳斌二十圓 元碩成四十圓 聽石六十圓 盧文祥二十圓 金鍾元二十圓 金武吉二十圓 李安仲瑞五圓 朴道煥五圓 金秉始馥五圓 宋榮瑞五圓 金寬五圓(安岳)

◇寸鐵◇

【楊州】 近日議政府市中에는夜半이되면주정꾼과싸홈꾼으로하야市民의安眠을妨害한다고一般이頗히警署나리님네取締좀하야줍소!

◇

【陽德】 所謂陽德郵便所는電話를不顧하고電話設置가업서一般의不平이만타는데電話를設置하면損害가남짓하야아니한다는것은郵便局當局者의主張! 利益이아니내設置하라는것은一般의要求이다

◇

【星州】 人民은水害餘에生活苦를부르짓는이때에郡守는妓生집出入이나하고宴樂에精神이업다고一般의怨聲이만타 與民同樂은不望이어니와體面이나維持함이좀如何?

鎭南浦에開催된 全朝鮮個人庭球

優勝의月桂冠은金泰植君

鎭南浦月星體育團主催와本社鎭南浦支局後援의第一回全朝鮮個人庭球大會는豫定과가티去月三十一日午前十時부터西南勝地鎭南浦의府廳코트에서열니엿는데定刻이되기전부터구름가티모여드는觀衆은어느듯廣場의四圍를一齊히휩싸버리엇고空前의大盛況을이루엇고在南浦各團의數百應援의必勝을祝하는應援拍手는果然極度에緊張味를띄우고終始和氣가充溢한中에서大盛況을呈하엿다

壯嚴한入場式

오래전부터손곱아기다리든全朝鮮個人庭球大會는正刻에南北의各地에서나오는斯界의明星二十二組四十餘名이各各『코-트』의引率下에壯嚴한入場式을擧行한後大會委員林炳七氏로부터選手의注意事項說明이잇섯다

鄭重한始球式

在南浦各選手의정첩한練習은數千觀衆의視線을잇으럿다各選手의練習이마치자멀리他地方에서參加한砂里院開城宜川定州平壤等地스타들의豪姿가거울가든『그라운드』에비최니자四圍를에워싼사람의울속에서는歡呼의넘치는拍手聲이압흐로흐르는大同江이쉬리어오르는듯場內를흔드는듯正刻이되매大會長李鍾燮氏의鄭重한始球式이잇서大會는이로써열리엇는데經過는아래와갓다

◇準決勝戰績◇

(第一回第二回豫選戰績는省略)

開城 李鍾鎭 劉殷相 4─1 裵善七 裵德 南浦

南浦 金植 金文鐸 4─2 朴?東 朴?禧 定州

開城 李鍾鎭 劉殷相 3─4 金泰植 金文鐸 南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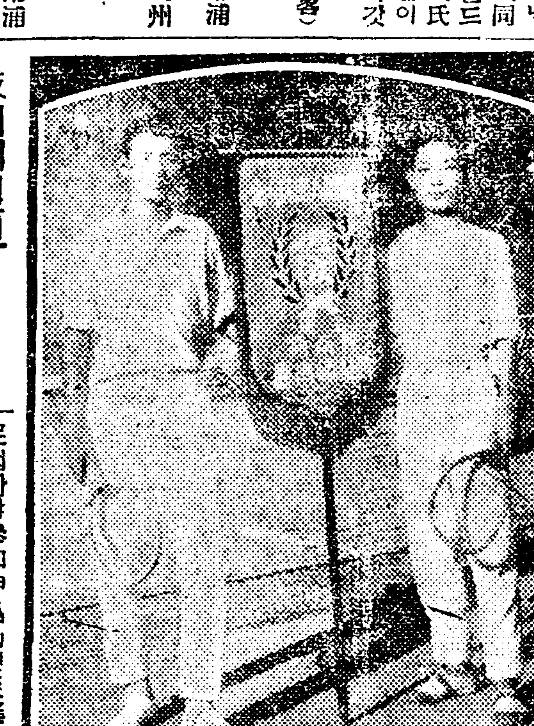
南浦軍優勝

開城軍奮鬪도水泡化

觀衆의緊張度로緊張되든中에서南軍의決勝戰이열리니戰術과技術이莫上莫下하야勝敗를辨定키難하엿든다開城軍이最後까지奮鬪하엿것만審判으로부터『게임』을宣言하니萬事水泡에歸하고마럿다

優勝旗授與式

大會가別項과가티盛況裡에마치고大會會長으로부터南浦軍金泰植金文鐸組에優勝旗를授與하고閉會하니때는午後四時半이엿다



優勝組의勇士 右는金文鐸君 左는金泰植君

大會寄贈京城소탈라運動具店 赤川軟球二打(鎭南浦)

成川에열린 西鮮庭球

本報成川支局主催로 初有의盛況

本報成川支局主催의西鮮庭球大會를八月三十日에開催한다함은旣報한바어니와數日前부터내리는비는이날에도개이지아니하야主催者側과選手들이속을태우는것은勿論이고一般觀衆들도자못궁한가운데試合을不得已延期하야날개이기를기다리기로하엿다 翌日인三十一日에는夜來의降雨도씻슨듯이개이여庭球의好日氣이엇다그러나數日前부터오는비로因하야參加申込하엿든選手들의不參이만히잇슨것은遺憾이엿다

午前十時에選手의入場式이잇고會長金潤瑋氏의開會辭와審判金天羽氏의競技에對한注意가잇슨後試合이開始되엿는데戰績은다음과갓다

◇第一回豫選戰

篠原 安性道 ○─× 寺洞組

寺洞組의不參棄權으로因하야篠原安性組는自然不勝戰이되엿다

全奎泰 床次 三─○ 金汀鶴 曹寅涉

全床次組와金曹兩組는同俱樂部選手임으로互讓의態度를取하기때문에따라서『에임』도그리

緊張된것

을보이지못하고零對三으로全床次組가勝利하다

金祥鳳 黃鍾元 一─三 車應道 李龍德

金黃組와車李組도同鄕인平壤選手들임으로도이『에임』도亦是緊張味가업섯다 그러나車李組共히平壤의名選手니만큼老練한技術을보여주엇다

鄭元商 文贊洙 三─二 林應國 尹鍾善

今日試合에처음으로보여준緊張된에임이엇다몬저鄭文組가二失하엿스나奮鬪하야二點을

挽回한後

乘勝하야다시一點을엇게되야遠來의江東組는三對二로惜敗하다

元容澤 金丙喜 一─三 金錫範 朴敬涉

金朴組는成川의老將임에對하야元金組는練習이不足하고또한遠路를오기엿슴에疲勞하야對敵이못되얏다

鄭元鎬 朴宗浩 ○─不參 鄭爾淵 安昌和

金奎龍 李松洙 ○─不參 劉殷相 李鍾爀

玄夏述 權德萬 不戰勝

鄭元鎬 朴宗浩 三─○ 鄭元商 文贊洙

鄭朴組는平壤의老將일뿐안이라西鮮庭球의明星임으로實로鄭文組의敵이아니엇다따라서白熱試合도보이지못하고三對零으로鄭文組가慘敗하다

車應道 李龍德 三─二 篠原 安性道

몬저安篠原組가二點을어드니形勢가大端히有利하엿스나車李組도平壤의强組임으로

善戰야

二點을挽回한後이어一點을得하게되매三對二로安篠原組가惜敗하다

全奎泰 床次 二─三 金奎龍 李松洙

兩組의技術과實力이比等하야各各二點을得한後다시『듀-스』를하다가李金組의貴重한一點으로全床次組는惜敗하엿다緊張된大端히愉快한『에임』이엿다

◇準決勝戰

鄭元鎬 朴宗浩 四─二 李松洙 金奎龍

玄夏述 權德萬 ○─三 朴敬涉 金錫範

兩組는實力에잇서서對敵이아니엇다따라서볼만한戰鬪도緊張味도업섯다

鄭朴組가平壤의老將임에對하야金李組는成川의重鎭임으로實로決勝戰의感이잇섯다그러나實力에잇서서鄭朴組가優秀하엿슴으로金李組는베스트를다하야奮戰하엿스나結局四對二로敗하다

金錫範 朴敬涉 四─二 車應道 李龍德

平壤의車李組가몬저二點을엇게되야成川의金朴組의陣勢는

자못不利

하엿스나金朴組는沈着한態度로조금도焦燥치아니하고奮戰하야二點을奪回하고破竹의勢로乘勝하야二點을連取하야二對四로勝利하다

◇決勝戰

鄭元鎬 朴宗浩 四─一 金錫範 朴敬涉

拍手裡에決勝戰은開始되엿다今番大會의優勝의榮譽를贏得하는一戰이니만큼異常緊張味를보게되엿다『게임』이開始되자鄭朴組는老練한技術의妙技를揮하야恒常金朴組를困苦케하엿다그러나金朴組도善戰善守하야게임은더욱佳境에入하엿다하나實力에잇서서鄭朴組가優越하야結局一對四로榮譽의優勝은鄭朴組에歸하다이것으로『게임』을終了한後賞品授與式이잇고會長의人事로大會를無事히大盛況裡에閉會하게되얏는데때는午後四時이더라(成川)

◇右 鄭元鎬君 ◇左 朴宗浩君

金浦庭球盛況

去三十一日午後二時에金浦郡廳코트內에서열린通津軍對金浦軍庭球試合은許瓊氏의主審으로開戰되야大盛況으로마치엇는데兩軍의戰績은如下하더라

通津軍		金浦軍
白箕南 吳仙豊	× ○	朴一陽 車泰順
吳春彬 趙南順	×○ ◎	藤井 朴龍淳
趙仁淳 田春山	× ○	奇正燮 徐相溶
朴鵬喜 吳英彬	× 不戰	李龍穆 文斗鉉

(金浦)

江景蹴球大會

優勝은裡里軍

江景靑年會主催인江景蹴球大會는去月卅日午後一時、江景公立普通學校運動場에서開催한바參加團體는礪山裡里江景靈夾四團體이며優勝은裡里軍이러라(江景)

全南 陸上競技

大盛況을呈해 寶城에서五日間

全南寶城少年團主催와靑年會東亞、朝鮮兩支局後援下에第一回全南陸上競技大會를當地公普校코-트에서八月二十五日午前九時부터五日間開催하얏는데每日觀衆은數千餘名에達하야全南에初有한大盛況을呈하고八月三十日午前十一時半에閉會하엿다는데受賞者는左와如하다더라

◇短距離 一等林瑞圭 金星煥 崔聖烈 金昌錫 二等金昌浩 金相吉 文南七 金靑奉 三等朴洪萬 林智圭 李辰遠

◇高跳 一等金、成金相吉 二等林智圭朴東鐸 三等文南七 王鎬爽

◇幅跳 一等金昌浩金夏鍵 二等金星煥林智圭 三等林瑞圭 金昌成

◇리-레 一等林智圭 金昌成 文南七 金夏鍵 林瑞圭 金相吉 金吉泰 李奉春 二等金癸英 金智順 朱?貝 金末釆 朴洪萬 劉相鉉 崔聖烈 金星煥

◇마라손(八千米) 一等林鋼韻(二十四歲) 二等金學南(二十一歲) 三等金振華(二十歲)

◇自轉車 一等曹文煥(二十二歲)(花樹) 二等白原勝(二十四歲)(長興) 三等明奉奎(二十八歲)(康津)

◇脚戲 一等鄭鎭大(三十三歲) 二等金生吉(二十一歲) 三等李三次(三十八歲)

◇庭球試合 一等金洪釆 金九(寶城)

信川에庭球試合

本月三十日三十一日兩日間에黃海道廳農務課員과黃海道選擇務課員은信川溫泉『호텔코-트』에서下午三時부터開戰하엿는데黃海道選擇務課가지난三十一日午前에決勝이엇스나最後勝利는農務課에歸하엿다더라(信川)

代理部事業內容

◇讀者의代理로善良한物品을低廉히購買하시게便宜를도리고廣告主의代理로商品의實質을說明하야紹介하기에宣傳함과아울러朝鮮産業의開發을爲하야各處特産品의宣傳試賣를代理하는使命을띄운朝鮮日報代理部의出生은幸히社會의要求에適應하야各方面으로부터深厚한愛同을밧게되얏습니다

◇同時에朝鮮日報代理部를利用하시고저事業規程을무르시는各地有志의書狀이每日踏至함으로이에新設한代理部의開設은曾往에보지못하든新試驗인故로事業實行의內容을左에開陳하야參考에드리고저합니다

◇物産受託宣傳

◇朝鮮産業發展에一助가될가하야京鄕을勿論하고各其地方의商品으로宣傳販賣를行하시라는人士이나又는組合의依賴에應합니다

◇受託할特産品의種類는制限치아니합니다本代理部와相議하시면當該物品의性質을考究하야品質에信用이잇고또한宜히販賣에適當한物品이면무엇이든지受託합니다

◇特産品의委託宣傳을行하시라면物品의見本이나雛形에原産地의價格産出數量其他參考될詳細說明을부처서代理部로送付하시거나直接來議하시기를바랍니다

◇受託한特産品의販賣價格은委託主의委託價格에直接經費의一部를添加하야決定하고委託主로부터何等의手數料이나經費를밧지아니합니다

◇委託品의販賣代金은每月一次에販賣된數量을調査하야現金으로드립니다或事情이잇서따로히相議하시면特別히約定할수도잇습니다

◇委託地로부터代理部에보내시는物品의運賃其他經費의負擔方法은雙方의協議를따라서委託主의便宜하시도록取扱하겟습니다

◇在來의物産으로現時의需要不適한것이나새로히發明한物品으로아직一般에紹介되지못한것도相議하야주시면代理部에서도協力硏究하겟습니다

◇代理部提供品

◇代理部에서提供하는物品은別로히制限이업스나또한아모것이나酬應하는것도아니올시다代理部에서責任으로써品質價格等을選擇하야一一히朝鮮日報紙上에紹介할것이올시다

◇物品의販賣價格은委託主又는廣告主로부터提供하는最低의原價에僅少한直接經費를添加할뿐임으로信用잇는物品으로는가장低廉일것이올시다

◇地方人士의便宜를計圖함이가장主要한目的임으로地方에서注文하심에應하야發送한物品이合意치아니하실때는注文의希望을딸하他物品과交換하든지代金을返還하든지迅速히酬應합니다

◇代理部에서提供하는物品은全部代理部內에陳列하야잇슴으로京城에居住하시거나京城에往來하시는人士는一次代理部를차지셔서現品의品質價格을詳細硏究하심을歡迎합니다

◇註文發送規程

◇註文하실때에代金과送料를先送하시면普通小包郵便으로發送하고그러치아니하면總히代金引換小包郵便으로送付합니다그러나代金引換小包郵便은料金이過多하고節次가繁雜하며且註文主가郵便局所外지出頭치아니하면物品을推尋키不能한等雙方의徒勞와損失이不少함으로本代理部를信用하시고반드시物品註文에는代金을先送하시도록勸告합니다

◇又代金을先送하실때는物品代金以外에郵送料(廣告에包裝費를明記하얏슴에는包裝費外지)를合算送付하시기를바랍니다그러치아니하면郵送料나包裝費로因하야代金引換小包郵便으로發送하게됩니다

◇停車場附近에居住하시는註文主에게는指定하심을따라鐵道便으로도送付합니다또物品의重量이나容積이小包郵便規定에超過될때에도鐵道便으로送付합니다

◇代理部提供品은廣告할때에相當한數量을準備함으로註文書의到達後二十四時間以內에는반드시發送합니다

◇送金과書信往復

◇送金하시는方法은小爲替、通常爲替、振替送金、銀行送金等무엇이든지註文主의便宜대로하실것이올시다

◇振替送金은가장安全低廉하오나爲替送金보다도二三日遲延됩니다振替送金은반드시『振替京城七九八番朝鮮日報代理部』로拂込하심을要합니다

◇代理部에關한事項은반드시直接『京城南大門通一丁目朝鮮日報代理部』로聞議하야주시기를바랍니다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

朝鮮日報代理部

電話光化門長三三四番

振替口座京城七九八番